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영화에 표현된 팜프 파탈

캐릭터 스타일 분석

- 2000년 이후의 영화를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오 채 은

한국 영화에 표현된 팜프 파탈
캐릭터 스타일 분석

- 2000년 이후의 영화를 중심으로 -

문 윤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오 채 은

인 준 서

오채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팜므 파탈’이란, 19세기 말 데카당스한 시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성 이미지로, 남성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을 말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1940년대에 나타난 범죄 영화 ‘필름 느와르’에서 구체화 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매체에 산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의 팜므 파탈은 파국으로 끝나는 악녀의 이미지였지만,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보다 더 단단해진 21세기 현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욕망에 솔직한,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팜므 파탈 이미지는 파급 효과가 큰 한국 영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현재 규정된 팜므 파탈 이미지의 여성상은 한정적이어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제작될 팜므 파탈 캐릭터의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법을 위해, 현재 개봉된 한국 영화 속 팜므 파탈 캐릭터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세기 서양 회화 속에 표현된 팜므 파탈 이미지의 여성상을 ‘잔인’, ‘신비’, ‘음탕’, ‘매혹’이라는 4가지 이미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여성상과 적합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2000년 이후의 한국 영화를 찾아, 그 속에 표현된 팜므 파탈 캐릭터의 스타일을 고찰 및 분석하였다. 따라서 팜므 파탈 캐릭터를 형상화하기 위한 시각적 측면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의 특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한국 영화 속에 나타날 팜므 파탈 이미지의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잔인한 이미지’의 팜므 파탈은 19세기 서양 회화에 표현된 ‘살로메’와 ‘메테이아’, 2000년 이후의 한국 영화 속에 표현된 ‘친절한 금자씨(2005)’의 ‘이금

자' 캐릭터를 통해 강한 욕망의 달성을 위해 남성을 유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잔혹한 요부형으로 표현되었다. 잔인한 팜프 파탈의 키워드는 '잔인', '분노', '파괴', '죽음', '복수', '괴기', '농염', '우울'로 요약되었다.

'신비한 이미지'는 회화 속에 표현된 '세이렌'과 '판도라', 영화 속에 표현된 '황진이(2007)'의 '황진이' 캐릭터를 통해 신비한 매력으로 남성들을 파멸시키는, 강렬히 끌어들이는 마력의 힘을 가진 요부형으로 표현되었다. 신비한 팜프 파탈의 키워드는 '신비', '오묘', '환상', '마력', '우아', '고혹', '당당'으로 요약되었다.

'음탕한 이미지'는 회화 속에 표현된 '릴리트'와 '메살리나', 영화 속 '간기남(2012)'의 '김수진' 캐릭터를 통해 성적 매력으로 남성들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음탕한 요부형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키워드는 '음탕', '퇴폐', '관능', '섹시', '농염', '도도', '도취'로 요약되었다.

'매혹적인 이미지'는 회화 속에 표현된 '프리네'와 '헬레네', 영화 속에 표현된 '카운트다운(2011)'의 '차하연'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미모만으로 남성들을 쉽게 유혹하고 다스리는 매혹적인 요부형으로 표현되었다. 키워드는 '매혹', '유혹', '요염', '미모', '섹시', '발랄', '화려'로 요약되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팜프 파탈의 스타일도 점차 변화되었으나, 팜프 파탈의 기본 개념과 전체적인 특징은 비슷한 양상들로 나타났다. 19세기 예술가들로 인해 탄생한 팜프 파탈의 요부형 이미지들이 21세기 현재에도 큰 영향을 주어, '동·서양'이라는 '문화' 차이와 '19세기'와 '21세기'라는 '시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났지만, 2000년대의 트렌드가 더해져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앞으로 새로운 팜프 파탈 캐릭터의 여성상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국 영화에 나타날 팜프 파탈 캐릭터가 좀 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상의 캐릭터를 제안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길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팜므 파탈	4
1) 팜므 파탈의 개념	4
2) 팜므 파탈의 형성배경	7
2. 19세기 서양 속에 표현된 팜므 파탈 이미지	12
1) 잔인한 이미지	13
2) 신비한 이미지	18
3) 음탕한 이미지	23
4) 매혹적인 이미지	28
III. 한국 영화 속 팜므 파탈 캐릭터 분석	35
1. 영화의 선정 기준	35
2. 영화 속에 표현된 팜므 파탈 캐릭터	36
1) 잔인한 이미지 - 친절한 금자씨(2005)	36
2) 신비한 이미지 - 황진이(2007)	44
3) 음탕한 이미지 - 간기남(2012)	54
4) 매혹적인 이미지 - 카운트다운(2011)	62
IV. 결론	71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19세기 회화 속에 나타난 팝므 파탈 이미지의 특징.....	34
<표 2> 한국 영화에 표현된 팝므 파탈 캐릭터 스타일 분석.....	68

그림 목 차

<그림 1> 환영: 살로메의 춤.....	15
<그림 2> 살로메, 절정.....	15
<그림 3> 메데이아.....	18
<그림 4> 격노한 메데이아.....	18
<그림 5> 인어.....	21
<그림 6> 어부와 세이렌.....	21
<그림 7> 판도라의 상자.....	23
<그림 8> 판도라	23
<그림 9> 릴리트.....	26
<그림 10> 레이디 릴리트.....	26
<그림 11> 타락한 로마인들.....	28
<그림 12> 메살리나.....	28
<그림 13> 포세이돈 축제의 프리네.....	31
<그림 14> 배심원들 앞에 선 프리네.....	31
<그림 15> 트로이의 헬레네	33
<그림 16> 헬레네.....	33
<그림 17> 영화 ‘친절한 금자씨(2005)’ 포스터.....	37
<그림 18> 교도소에 가는 이금자.....	38
<그림 19> 기도 중인 가는 이금자.....	38
<그림 20> 총을 주문할 때.....	39
<그림 21> 근식과의 성관계 후.....	39
<그림 22> 복수를 감행하기 전.....	40
<그림 23> 이금자의 눈.....	40
<그림 24> 이금자의 입.....	40

<그림 25> 그녀의 집에서 딸 제니와 함께	42
<그림 26> 13살 어린 남자, 근식과 함께	42
<그림 27> 형사를 찾아간 빵집에서	43
<그림 28> 감방 동기와 함께	43
<그림 29> 복수를 하러 가서	43
<그림 30> 백선생에게 충을 겨누며	43
<그림 31> 영화 ‘황진이(2007)’ 포스터	45
<그림 32> 기생이 되기 전 황진이	46
<그림 33> 기생이 된 후 일상생활에서	46
<그림 34> 기생이 된 황진이_1	48
<그림 35> 기생이 된 황진이_2	48
<그림 36> 벽계수를 조롱할 때	48
<그림 37> 기생 황진이의 헤어_1	48
<그림 38> 서화담을 만나러 가는 길	49
<그림 39> 기생 황진이의 헤어_2	49
<그림 40> 시조를 읊으며	52
<그림 41> 너울 쓴 황진이	52
<그림 42> 기생 황진이의 자태	52
<그림 43> 기생이 된 첫날	53
<그림 44> 사또와의 하룻밤 후	53
<그림 45> 영화 ‘간기남(2012)’ 포스터	55
<그림 46> 경찰조사를 받을 때	57
<그림 47> 억울해하는 강선우를 바라보며	57
<그림 48> 한국을 떠난 후 강선우와의 통화	57
<그림 49> 김수진의 눈_1	57
<그림 50> 김수진의 입_2	57

<그림 51> 남편의 장례식 날	58
<그림 52> 김수진의 눈_2	58
<그림 53> 김수진의 입_2	58
<그림 54> 거짓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60
<그림 55> 강선우를 간호하며	60
<그림 56> 진실을 밝히는 김수진	60
<그림 57> 경찰서에서 진술 후	60
<그림 58> 한국을 떠나기 전	61
<그림 59> 남편의 장례식 전 거짓슬픔	61
<그림 60> 영화 '카운트다운(2011)' 포스터	63
<그림 61> 복역 전 투자자들을 설득시키며	64
<그림 62> 복역 전 사업파트너를 회유하며	64
<그림 63> 복역 후 BAR에서	65
<그림 64> 차하연의 눈	65
<그림 65> 차하연의 입	65
<그림 66> 기밀문서를 손에 넣고	65
<그림 67> BAR에서	65
<그림 68>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때	67
<그림 69> 사업파트너를 회유할 때	67
<그림 70> 요트 위에서 회장님을 유혹하며	68
<그림 71> 완벽한 사기로 돈을 모은 후	68
<그림 72> 조명석의 부하에게 접근하기 전	68
<그림 73> 조명석의 부하를 유혹할 때	68

I. 서 론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체제 속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라고 생각했고,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보수적이었던 가치관에서 벗어나 여성에 대한 시각은 점차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는 세기말이라는 집단 불안감과 데카당스(Decadence)한 분위기로 여러 양상들이 나타났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점점 강해지는 여성에게 남성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위기의식에 빠졌다. 예술가들은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통해 여성을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 불안해진 남성들의 심리를 표현하고자 했고, 이러한 여성은 ‘팜므 파탈(Femme Fatale)’이라는 이름으로 창출되어 그 용어는 성행하게 되었다¹⁾.

‘팜므 파탈’은 프랑스어로 ‘여성’을 의미하는 명사 ‘팜므(Femme)’와 ‘숙명적인, 운명적인’ 의미의 형용사 ‘파탈(Fatale)’의 복합어로서 아름다운 외모와 관능미로 남자를 파멸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인을 말한다²⁾.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향상되었고, 특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단단해졌다. 한국에서는 2005년 남성 중심 제도였던 호주제가 폐지됐으며, 2008년에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10일간 머무른 한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나오기도 했다. 2012년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가치와 경쟁력은 국내·외로 상당히 높아졌다.

현재까지 대중문화 전반에 표현되고 있는 팜므 파탈 이미지는 영화와 광고, 드라마 등 각종 매체와 화장품 등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재창조되어 상품

1) 박정원(2007). “팜므 파탈 이미지 메이크업-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

2) 유한나(2009). “한국영화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와 캐릭터 스타일링에 관한 연구-의상,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화되고 있다. 오늘날 팝프 파탈은 파국으로 끝나는 악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21세기 여성으로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욕망에 솔직하며, 자기 행복을 개척해내는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팝프 파탈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의 역할모델이 되기에 이르면서³⁾ 매력 넘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다양한 매체에서 팝프 파탈 이미지가 투영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매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특성상 스토리, 분장, 의상, 소품 등으로 팝프 파탈의 정체성을 다른 장르보다 더 뚜렷하게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영화 속에서 표현된 팝프 파탈은 대중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팝프 파탈을 영화의 소재로 삼으려 할 때, 현재 규정된 팝프 파탈 이미지의 여성상은 다소 한정되어 있어 시각적 표현 영역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팝프 파탈을 주제로 한 선행 논문 중 남선미(2004)의 “회화 속 등장인물의 팝프 파탈 이미지 분석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와 박진형(2007)의 “팝프 파탈 이미지에 나타난 심상표현 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박선정(2009)의 “팝프 파탈의 토탈 패션 이미지 분석-영화 『발몽』 과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을 중심으로”를 살펴보면, 팝프 파탈을 ‘잔인’, ‘신비’, ‘선정’ 3가지 이미지의 여성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팝프 파탈을 주제로 한 이명옥(2008)의 저서 “팝프 파탈-치명적 여인들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의하면 더 세부적인 ‘잔혹’, ‘신비’, ‘음탕’, ‘매혹’ 4가지 이미지의 여성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선행 논문들과의 차이점은 ‘정욕을 자극하여 일으키다’는 뜻의 ‘선정’ 부분을 ‘음탕’과 ‘매혹’으로 나누어 분류한 것인데, ‘음탕’은 성욕이 넘치는 도발적인 여인의 이미지이고, ‘매혹’은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남성성을 사로잡는 여인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정’ 하나로 묶어 설명

3) 김차애(2006). “한국영화에 나타난 팝프파탈 이미지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9.

4) 상계서, p.31.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선행 논문들 대부분 2000년 이전에 개봉된 영화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져 있어 2000년 이후에 개봉된 한국 영화 속 팝므 파탈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영화 속에서 표현된 팝므 파탈 캐릭터 스타일을 규명하기 위해, 2000년 이후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 ‘잔인한 이미지’, ‘신비한 이미지’, ‘음탕한 이미지’, ‘매혹적인 이미지’라는 4가지 여성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화를 찾아 그 속에서 표현된 팝므 파탈 캐릭터의 스타일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작될 팝므 파탈 영화의 시각적 표현 방법 중 하나인 캐릭터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및 의상의 특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한국 영화 속에 나타날 팝므 파탈 이미지의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 문헌 및 기사와 선행 논문, 그리고 선정된 영화의 DVD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캡처한 사진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팝므 파탈의 개념과 형성배경을 문헌과 선행 논문을 통해 알아본다.

둘째, 19세기 서양 회화 속에 표현된 팝므 파탈 이미지를 가진 성서와 신화 속 인물 및 실존 인물을 4가지 여성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셋째, 2000년 이후의 한국 영화 중 앞서 언급한 4가지 여성상에 적합한 대표영화를 각 1편씩 선정하고, 각 영화에 표현된 팝므 파탈 캐릭터의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고찰 및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팜므 파탈

1) 팜므 파탈의 개념

팜므 파탈은 남성의 욕망을 자극하여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숙명적 여인을 뜻하는 말이다⁵⁾. 한국어로는 ‘요부(妖婦)’, ‘악녀(惡女)’ 혹은 ‘탕녀(蕩女)’로 표현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Fatal Woman (치명적인 여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 팜므 파탈에 대한 연구나 영화 평론지 등에서 ‘Femme Fatale’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여러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하나의 고유명사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팜므 파탈’에서 운명적이라는 의미의 ‘Fatale’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굴레를 뜻한다.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주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의 여성을 의미하는데, 남성을 압도하는 잔인한 매력에 의해 남성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팜므 파탈의 속성이다⁷⁾.

카롤라 힐메스(Carola Hilmes, 1965-현재)는 그의 저서 ‘Die Femme Fatale(1990)’에서, 팜므 파탈에 ‘유형 개념(Genre Concept)’을 적용하여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발견하고 그러한 유사성들만의 공통점을 유출한 최소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⁸⁾.

‘가족유사성’이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 - 1951)이 내린 정의로, 범주의 한 구성원이 가진 속성을 그 범주의 다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⁹⁾. 이러한 비트겐슈타

5) 유한나(2009). 전계서, p.1.

6) 윤보원(2005). “영화에 나타난 팜므 파탈 이미지와 스타일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

7) 박정원(2007). 전계서, p.5.

8) 이화진(1997). “팜므 파탈 Femme fatale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인이 정의내린 가족유사성을 바탕으로 힐메스는 “팜프 파탈은 관능성을 지닌 젊은 여성으로 그녀에게 매혹당한 남성은 해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남성을 희생자로 만드는 여성의 유혹기술은 팜프 파탈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이러한 여성은 결말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죽음으로 벌을 받는다.”는 ‘최소정의’를 내렸다. 이는 팜프 파탈이 남성들에게 쾌락과 관능의 완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위험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양면적 성향을 드러낸다¹⁰).

성적매력으로 남성을 파멸시키는 탕녀가 팜프 파탈인 만큼, 평범한 여성은 결코 팜프 파탈이 될 수 없었다. 고대에 살았던 여성,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여성, 이국적인 여성, 신비로우면서 수수께끼 같은 매력을 지닌 여성, 그리고 관능적이면서 위험한 여성만이 팜프 파탈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지녔다. 이러한 팜프 파탈은 19세기 말 예술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¹¹, 사악하고 파괴적인 여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19세기 말 문화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였다¹²).

팜프 파탈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경우 버지니아 알렌(Virginia M. Allen, 1927-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ow, 1856-1950)가 용어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1912년 극 비평에 관한 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¹³. 이 용어가 대중화된 것은 1950년 대 후반 프랑스의 영화 평론지 ‘까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ema)’의 평론가들에 의해서이다¹⁴. 이들은 2차 대전 전 후 시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B급 범죄 스릴러 영화를 필름 느와르로 분류하면서 이 영화들에 대한 정의를

9) 곽호완 외(2008).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p.4.

10) 이화진(1997). 전개서, p.9.

11) 이명옥(2008). 팜프파탈-치명적 여인들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서울: (주)시공사·시공아트, pp.24-26.

12) 한수정(2006). “예술의 팜프파탈(Femme Fatale) 이미지에 관한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13) Virginia M. Allen(1983). The Femme Fatale, New York: Whiston Publishing Company, Incorporated, p.viii.

14) 임현주(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팜프 파탈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

내리고 일련의 경향과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팜므 파탈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되었고¹⁵⁾, 세기 말 팜므 파탈은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사실상 19세기 말에는 팜므 파탈 뿐 아니라 이와 대립되는 성격과 외모를 지닌 ‘팜므 프라질(Femme Fragile)’이 공존하고 있었다. 초기 낭만주의의 정신적 여성상과 연결되는 팜므 프라질은 ‘부서지기 쉬운, 허약한’이라는 뜻을 가진 ‘프라질(Fragile)’과 ‘여인’이라는 뜻의 ‘팜므(Femme)’가 결합된 프랑스어로 ‘허약한 여인’을 말한다. 그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던 질병과 죽음은 그녀의 가냘프고 성스러운 외모에서 미학적으로 변형되었다¹⁶⁾.

19세기 초반은 연약하고 순수한, 가냘픈 여성 이미지의 팜므 프라질이 예술가들에 의해 성행하였고, 그 후 한 세기가 끝날 무렵인 19세기 말부터 유럽의 회화나 문학에서 이전과는 다른 여성 이미지를 가진 작품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팜므 프라질이 사라지면서 데카당스, 잔인함, 성적 만족을 향한 모습의 팜므 파탈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¹⁷⁾. 두 유형의 여성상은 모두 억압된 관능에 대한 표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남성들이 느끼는 여성에 대한 격렬한 욕망과 공포의 대립 즉, 두 개의 극단적인 이미지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¹⁸⁾.

팜므 프라질과 팜므 파탈은 ‘성녀(聖女)’와 ‘악마’, ‘순결한 영혼’과 ‘유혹적인 영혼’, 이렇게 서로 상반된 유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름다움과 관능에 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내적 욕구의 예술적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여성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 미학적 여성상을 구축하였는데, 이들의 대조된 양극성 때문이었다. 팜므 프라질은 관능의 승화로

15) 윤보원(2005). 전계서, p.4.

16) 한지연(2014). “롤랑 프티(Roland Petit)의 「젊은이와 죽음(Le Jeune Homme et la Mort)」에 내재된 팜므 파탈(Femme Fatale) 이미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17) 상계서, p.13.

18) 이화진(1997). 전계서, p.16.

표현되어 여성의 아름다움과 순수성이 강조되고 억압된 성이 그 특성을 구성하는 반면 팜므 파탈은 자유로운 성의 대가로 관능적 환상을 부여받으며 파멸, 죽음과 연관되어 묘사된다. 그렇기에 이들은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중적인 여성 기준의 잣대를 반영하며 19세기의 억압된 성 도덕의 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심리학자 카렌 호니(Karen Horney, 1885-1952)는 문학과 회화에 나타난 팜므 파탈 여성 이미지에 대해 ‘실제 생활’을 반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남성이 느낀 ‘여성에 대한 공포(Dread of Woman)’로 인해 구체화 되었다고 하였다. 호니는 “남자가 여자로 인해 죽거나 파멸될 수 있다는 공포는 무력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나 계속되어 왔다”라고 말했다²⁰⁾.

남성적 상상력의 창조물인 팜므 파탈은 많은 문학작품 속에서 이야기 진행이나 사건 전개 중심요체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페라나 영화의 대본으로 개작되기도 했다²¹⁾. 이와 같이 팜므 파탈이라는 용어와 이미지는 최근에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영화, 광고 등의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2) 팜므 파탈의 형성 배경

1950년 대 후반 프랑스의 영화 평론가들에 의해 팜므 파탈이라는 용어가 대중화 되었지만, 팜므 파탈의 이미지를 창안한 사람은 19세기 말 유럽 화가들이었다²²⁾.

세기 말의 불안감과 새로운 세기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전반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전의 도덕적이고 정숙한 미인보다 고전적 신화나 성서 속에 존재했던 사악하게 표현된 많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했다²³⁾. 이 여성들은 예술

19) 김차애(2006). 전계서, p.23.

20) 조권희(1993). “귀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의 작품에 나타난 Femme Fatale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1-22.

21) 이화진(1997). 전계서, p.10.

22) 이명옥(2008). 전계서, p.6.

23) 유한나(2009). 전계서, p.10.

가들에 의해 생명력을 얻으며 팜프 파탈로 환생하였고, 예술가들은 치명적인 매력의 팜프 파탈을 앞다투어 그림에 선보였는데 그 당시 팜프 파탈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팜프 파탈을 우상처럼 숭배했다²⁴). 이처럼 세기말 팜프 파탈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19세기에 있어서 팜프 파탈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나타난 정신의 다양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⁵).

팜프 파탈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꼽힐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언급했듯 세기말의 데카당스한 분위기이다. 데카당스는 ‘쇠퇴’, ‘몰락’ 등을 나타내는 프랑스어로 프랑스를 비롯하여 영국, 오스트리아,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²⁶), 세기전환의 혼란함이 팽배해지면서 ‘세기 말의 종말’이라는 음울한 분위기가 사람들을 집단 불안감에 감염시켰다. 타락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공포를 잊기 위해 에로티시즘에서 구원을 찾았다²⁷).

데카당스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규칙이나 관습을 부정하는 낭만주의라는 예술사조가 등장하였는데²⁸),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예술 사조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지만 문명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믿음 속에서 이성보다 인간 본연의 감성을 중요시하고 표현하였다²⁹). 낭만주의에 이어 상징주의, 허무주의 및 표현주의라는 예술사조가 나타났다. 이러한 예술사조는 탐미적, 퇴폐적이며 타락한 예술사조라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일부 예술가들은 한층 더 퇴폐적인 분위기의 예술사조로 변화되었으며, 매혹과 공포의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팜프 파탈 모티브에 더욱 열광하게 되었다³⁰).

24) 이명옥(2008). 전계서, p.6.

25) 한수정(2006). 전계서, p.17.

26) 이지원(2004). “20세기 초 무용에 나타난 팜프 파탈(Femme Fatale)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제 14집, p.170.

27) 김차애(2006). 전계서, p.24.

28) 김성일 외(2006). “팜프파탈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미국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제1권 2호, pp.82.

29) 박정원(2007). 전계서, p.7.

두 번째로, 19세기의 서구는 산업혁명과 신흥 부르주아(bourgeois)의 등장
에 의해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겪게 된다³¹⁾.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로 전통적인 성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의식에 눈을 뜬 신여성들이 주체적이
되면서 목청을 높이던 시기이다. 여성들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순종적
인 삶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탈바꿈하였다. 천사같은 여자와 악마
같은 여자, 즉 성녀와 창녀(娼女)라는 이원적 대립 구도에 젖어 있던 남성들
은 동등한 성의 자유를 주장하며 성해방을 부르짖는 여성들에게 불안감과 두
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들이 자신을 지배하는 존재로 돌변하자
매혹당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남
성의 여성에 대한 욕망과 공포가 팜프 파탈에 투영되었고, 이런 심리적인 요
인들이 곧 예술과 사회 전반에 걸쳐 요부들이 득세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
다³²⁾.

남성들의 이러한 불안감의 증폭은 극단적이며 위협적인 팜프 파탈이라는
예술장르를 창조해냄으로 여성의 관능성과 치명적 매력에 대한 두려움을 고
지시키고 이전의 유약하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로 표출되
었다³³⁾.

세 번째로, 19세기 말 유럽인들은 인간의 영원한 주제인 '성'에 탐닉했고 성
에 집착할수록 매춘이 성행했다. 악순환으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린 탓에 유
럽 전역에 성병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났고, 그 후유증은 심각했으며 사람들
에겐 성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끝없는 임신과 낙태, 불륜과 원조교제로
고소와 협박이 이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섹스는 곧 파멸'이라는 인식이 팽
배해졌고³⁴⁾, 남성들은 여성을 본질적으로 악하게 해석하며 팜프 파탈 이미지

30) 김성일 외(2006). 전계서, pp.82.

31) 박은정(2008). 전계서, p.19.

32) 이명옥(2008). 전계서, p.10.

33) 박선정(2009). 전계서, p.6.

34) 이명옥(2008). 전계서, p.6.

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19세기 이전에도 에로틱한 회화 등에서 팜프 파탈 이미지는 존재했으나 그리 각광받는 이미지가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갑작스럽게 팜프 파탈이라는 여성 이미지가 강조되어 표현된 배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남성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여성들의 법적·제도적 기득권 투쟁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관계가 있다³⁵⁾.

또한 독일의 미술학자 빌헬름 보링거(Wilhelm Worringer, 1881-1965)의 저서 ‘추상과 감정이입(Abstraction and Empathy, 1908)’을 보면 어느 특정 작품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내면의 무언가가 결여되고 이러한 결함이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갖는 호감과 반감의 취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⁶⁾. 팜프 파탈 이미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19세기 유럽인들은 무언가가 동시에 심리적으로 결핍되었고 이로 인하여 요부, 악녀형 이미지가 시대의 트렌드(trend)로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³⁷⁾.

팜프 파탈 이미지가 예술의 영역에서 그 주제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낭만주의 문학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존 키츠(Jone Keats, 1795-1821)의 시 ‘잔인한 여성(La Belle Dame Sans Merci)’에서 여성을 팜프 파탈 이미지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 속에 여성은 긴 머리카락으로 남성의 목을 휘감아 죽이는 마술적이면서 신비스러운 고통으로 표현되어져 있다³⁸⁾.

키츠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는 그의 대표적인 시집 ‘악의 꽃(Les Fleurs du Mal)’에서 남성을 잡아먹는 뱀파이어를 팜프 파탈 이미지의 여성으로 담았다³⁹⁾. ‘악의 꽃’에서 ‘악’

35) 조권희(1993). 전개서, pp.20-25.

36) 알랭 드 보통, 정미나 역(2013). 인생학교-섹스, 경기: (주)쌤앤피커스, pp.90-91.

37) 한지연(2014). 전개서, p.16.

38) 한수정(2006). 전개서, p.20.

39) 박정란(2003). “팜프 파탈-성과 권력의 문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은 고통과 원죄의 윤리적·도덕적인 표현이고, ‘꽃’은 미학적으로 연계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두 단어는 상반되고 대립되는 어휘이지만 조사 ‘의’로 인해 ‘악으로부터 추출된 아름다움’이라는 결합된 의미를 뜻하게 된다. 보들레르의 미의 개념은 과거 착하고 선한 것에서 추하고 악한 것, 여러 양상들로 빚어지는 고통 속에서 미지의 세계를 갈망하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파악한다⁴⁰⁾.

팜프 파탈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퇴폐적인 경향으로 쇠퇴, 몰락, 세기말의 종말론이 유행하면서⁴¹⁾ “여성이란, 말하자면 손상된 남성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의 여성 혐오적인 주장을 뒷받침해주듯⁴²⁾ 프로이트에 의해 성적인 것이 학문의 주제로 다루어졌다⁴³⁾.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 감춰진 원초적 본능인 성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전파했다. 그는 여자가 남자의 목을 자른 행위를 여성의 거세욕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근을 탐낸 여성들이 거세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타난 행위라는 것이다⁴⁴⁾. 여성들은 남근선망을 갖는 동시에 열등감을 갖고 남성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오려는 거세욕구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러한 여성이 남성에게는 필연적으로 위협한 존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⁴⁵⁾.

어떤 세대에서도 19세기처럼 이렇게 일관되고 강령적이며, 적나라하게 여성을 흡혈귀, 거세자, 그리고 살인자로서 묘사한 시기가 없었다⁴⁶⁾.

이러한 남성들의 위기의식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인기있는 팜프 파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0) 김성일 외(2006). 전계서, pp.82.

41) 홍수남 외(2009). “팜프 파탈 이미지와 스모키메이크업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대중스타를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 10권 4호, pp.28

42) 거다 러너, 김인성 역(1999).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서울: 평민사, p.20.

43) 홍수남 외(2009). 전계서, pp.28

44) 이명옥(2008). 전계서, p.59.

45) 김차애(2006). 전계서, p.25.

46) 박승현(2004). “회화에 나타난 팜프 파탈 연구-19세기말, 20세기초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2. 팜프 파탈 이미지

팜프 파탈의 속성은 그리스 신화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화 속의 팜프 파탈은 이들이 오랜 역사를 가졌음을 짐작하게 해주지만, 이브의 원죄가 엄청나게 과장된 악으로 재생되고 강화된 것은 19세기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여성에 대한 개념 때문이었다⁴⁷⁾. 감수성이 예민한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하여 불안의 요소를 정형화 하였고, 주로 성서에 나오는 여성이나 신화적 존재, 역사적 여성을 상대로 표현하였다⁴⁸⁾. 팜프 파탈이 등장하는 예술 중 회화에서는 그 특성이 시각적 상징을 통해 강렬하게 부각되었다. 유혹적인 긴 머리카락과 쇠뿔을 거는 것 같은 커다란 눈, 황홀감을 주는 뜨거운 입맞춤 등으로 형상화되어 남성에게 상처를 주는 숙명적 여성 이미지로 정형화되었다⁴⁹⁾.

대부분 성적 매력을 지닌 관능적 이미지로 팜프 파탈 이미지가 한정되어 있지만 치명적인 매력의 팜프 파탈은 그 외 몇 가지 이미지들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팜프 파탈의 구체적인 여성 이미지의 이해를 위해 팜프 파탈이 주제가 되어 그려진 회화 작품 중 팜프 파탈의 전성시대, 즉 19세기 말에 그려진 작품들을 통해 팜프 파탈의 특징인 4가지 여성상 ‘잔인, 신비, 음탕, 매혹’으로 분류하여 팜프 파탈 여주인공의 이미지를 고찰 및 분석하고자 한다. 팜프 파탈 이미지의 여성상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명옥의 저서 ‘팜프 파탈-치명적 여인들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2008)’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분류하였다.

남성을 유혹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이미지, 남성들 스스로 매료되어 파멸에 이르는 신비한 이미지, 성적인 매력으로 남성들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음탕한 이미지,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성들을 사로잡아 파멸시키는 매혹

47) 임현주(2004). 전계서, p.6.

48) 박은정(2008). 전계서, p.19.

49) 박승현(2004). 전계서, p.31.

적인 이미지의 팜프 파탈 여성들을 구분하여 그 중 각 이미지에 가장 크게 부합되는 2명씩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잔인한 이미지

잔인한 이미지는 강한 욕망의 달성을 위해 남성을 유혹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여성의 요부형 이미지이다. 이 요부들은 표독스럽고 독살스러운 얼굴 표정, 도도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사건에 따라 극단적인 살인이나 철저한 계획을 세워 남성을 유혹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다. 잔인한 이미지는 남성에게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 질투심이 만들어낸 팜프 파탈 이미지의 표상이며⁵⁰⁾, 이러한 이미지는 여러 화가들의 작품 속에서 어두운 색이 주를 이루는 무거운 분위기와 극적인 명암법, 뚜렷한 음영의 요소로 많이 나타난다⁵¹⁾.

잔인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죽음을 부르는 살로메(Salome)와 그리스 신화를 통틀어 가장 잔인한 악녀인 질투와 복수의 화신 메데이아(Medeia), 남성의 목을 벤 살기 어린 잔인함의 유디트(Judith), 그리고 매력과 위협이 아찔하게 공존하는 메두사(Medusa)와 살인을 즐기는 요부 스피нк스(Sphinx)가 있다⁵²⁾.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살로메와 메데이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살로메(Salome)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 1897-1962)는 그의 저서 ‘에로티즘(Eroticism)’에서 “성욕과 살해욕, 고통과 쾌락, 사랑과 죽음처럼 지극히 상반된 감정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졌으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욱

50) 남선미(2004). “회화속 등장인물의 팜프 파탈 이미지 분석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6.

51) 상계서, p.2.

52) 이명옥(2008). 전계서, p.12.

완성시켜준다⁵³.”고 말했다. 이 주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살로메이다. 그녀는 가장 악명 높은 희대의 독부이며 잔혹한 요부의 여왕이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성적 매력을 미끼로 한 남성을 유혹하고 그가 또 다른 남성을 살해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이다⁵⁴. 그녀는 헤로데(Herod) 왕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춘 대가로 어머니인 헤로디아(Herodias)가 시키는 대로 세례자 요한(John the Baptist)의 머리를 요구한다. 헤로디아는 근친결혼을 한 자신과 남편 헤로데를 비난하는 요한이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결국 헤로데 왕의 생일날 요한은 목이 잘려 끔찍하게 죽는다⁵⁵. 그러나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의 희곡에서는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바란 이유에 대해 그에 대한 연모의 감정으로 재해석했다. 살로메는 요한을 사모했으나 그는 그녀에게 ‘창녀의 딸’이라고 폭언하며 그녀의 사랑을 무시했고, 그녀는 자신의 성적 욕구가 좌절된 나머지 그를 파멸시켜 버린 것이다. 19세기에는 이러한 나쁜 여자에게 매료된 예술가들에 의해 이 일화를 주제로 한 회화와 문학, 오페라 등이 다수 제작되었다⁵⁶.

살로메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동시에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공격을 겁낸 남성의 공포를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어 팜프 파탈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⁵⁷.

<그림 1>은 로비스 코린트(Lovis Corinth, 1858-1925)의 작품으로, 한 남성은 방금 전 요한의 목을 벤 것 같은, 빨간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있으며, 또 한 남성은 요한으로 짐작하게 하는 쓰러져있는 듯 한 사람의 다리를 들고 있다. 그 가운데 살로메로 보이는 여인은 잘려진 요한의 머리를 내려다보며 그의 눈을 어루만지고 있다. 살로메의 표정에서 한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냉혹한 여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젓가슴을 드러내어 하얀 속살을 그대

53)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역(1989). 에로티즘, 서울: 민음사, p.20.

54) 이명옥(2008). 전개서, pp.17-30.

55) 이동현(2009). 신들의 사랑법, 서울: 오피스, pp.188-189.

56) 상계서, pp.191-192.

57) 이지원(2004). 전개서, p.179.

로 내보인 모습에서 농익은 섹시함도 함께 엿볼 수 있다.

<그림 2>는 아르누보의 대표적 작가 오브리 빈센트 비어즐리(Aubrey Vincent Beardsley, 1872-1898)의 작품이다. 살로메가 요한의 잘린 머리를 쥐고 입을 맞추려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요한의 머리에서는 피가 떨어져 꽃을 피워내고 있다. 이는 변태적이고 잔인한 살로메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작품은 아르누보의 특징인 우아한 곡선들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흑백의 강렬한 표현으로 차갑고 냉정함이 느껴지며⁵⁸⁾, 흑백으로만 그려져 있는 모습에서 불길한 위험을 담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처럼 살로메는 한 나라의 왕을 지배하고, 한 남성을 자신 뜻대로 파멸시키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잔인하고도 당당한 팜므 파탈의 여인이다.



<그림 1> 살로메(1899),
로비스 코린트 작
(이명옥(2008), p.18.)



<그림 2> 살로메, 절정(1894),
오브리 빈센트 비어즐리 작
(이명옥(2008), p.38.)

58) 임현주(2004). 전계서, p.40.

(2) 메데이아(Medea)

메데이아는 ‘질투와 복수의 화신’이 된 여자로, 그리스 신화와 비극을 통해 가장 잔혹한 여인이지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여자이기도 했다⁵⁹).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심장을 겨누기 위해 두 번이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친 정열적인 여인이었다⁶⁰).

메데이아는 콜키스(Colchis)의 왕 아이에테스(Aeetes)의 딸로 태어나 빼어난 미모에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졌으며 총명하기까지 한 여인이었다. 게다가 마법까지 부리는 진기한 능력을 가져 독약을 제조하는 기술까지 뛰어났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인이 아버지의 황금모피를 훔치러 온 이아손에게 한 눈에 반해 조국을 배신하고 동생까지 죽이고는 그와 함께 달아나게 된다. 이러한 메데이아 덕분에 황금양털을 손에 넣고 의기양양하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아손은 훗날 코린토스(Corinth) 왕의 딸 글라우케(Glauce)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⁶¹). 배신당한 메데이아는 주체할 수 없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 사랑을 배신한 남편과 연적에게 끔찍한 복수를 한다. 연적 글라우케에게는 독이 묻은 망토를 주어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게 하고, 남편 이아손에게는 그를 죽이는 대신 그의 대를 끊고자 자신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복수를 한다⁶²).

<그림 3>은 앤터니 프레데릭 샌디스(Anthony Frederick Sandys, 1829-1904)의 작품으로 메데이아가 연적 글라우케를 살해하려고 마술을 부리는 심뜩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많은 화가들은 메데이아가 마법사였다는 것에 매료되었다. 작품 속 메데이아는 불길에 독을 붓고 있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붉은 목걸이를 거칠게 잡아 뜯고 있다. 그녀의 눈은 증오심이 가득하고 입술 사이로 저주의 한숨이 흘러나오는 듯 하다. 샌디스는 사랑받지 못하는

59) 이경덕(2013). 하룻밤에 읽는 그리스 신화, 서울: (주)알에이치코리아, p.150.

60) 바르바라 지히터만, 안인희 역(2002). 여성, 서울: 해냄, p.32.

61) 박은정(2008). 전개서, p.26.

62) Laura Adler, Elisa Lecosse(2013). Dangerous Women-The Perils of Muses and Femmes Fatales, Random House, Inc., p.76.

여자의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⁶³⁾.

<그림 4>는 외젠 들라크루아(Eugene Delacroix, 1798-1863)의 작품으로 두 아이들과 어머니의 몸은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되었으며, 메데이아의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표현하였다. 어둡고 거친 동굴 속에서 그녀의 눈을 가려 그림자를 드리운 장면과, 힘이 잔뜩 들어간 오른쪽 팔 그리고 단검을 꽂은 주먹은 잔인하고 사악한 분노가 느껴지게 한다.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아이들의 눈은 공포가 가득 차 메데이아의 야만성을 강조한다. 붉은색의 가운 역시 비극적인 여주인공의 살인적인 분노와 곧 피가 바닥에 흐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이 작품은 한 여성이 끔찍한 분노의 불씨로 인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⁶⁴⁾, 엄마이기보다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의 한을 보여준다. 이렇게 끔찍한 복수의 장면에서도 여성으로서의 관능미를 보여주듯 메데이아는 가슴을 풀어헤쳐 젖가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63) 이명옥(2008). 전개서, pp.68-69.

64) Laura Adler 외(2013). 전개서, p.76.



<그림 3> 메데이아(1866-1868),
앤터니 프레데릭 샌디스 작
(이동현(2009), p.198.)



<그림 4> 격노한 메데이아(1862),
외젠 들라크루아 작
(Laura Adler 외(2013), p.77.)

이와 같이 19세기 회화에서 표현된 잔인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성서 속 인물 살로메와 신화 속 인물 메데이아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랑하는 남자를 갖지 못하자 파멸시켜버리는 욕정의 여인 살로메와 자신을 배신한 남편 때문에 자식까지 살해하는 질투와 복수의 화신 메데이아를 통하여 잔인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잔인’, ‘분노’, ‘파괴’, ‘죽음’, ‘복수’, ‘사악’, ‘공포’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2) 신비한 이미지

신비한 이미지는 비밀스러운 표정과 알 수 없는 오묘한 눈빛들로 하여금 남성들 스스로가 매료될 수 있도록, 강렬히 끌어들이는 마력의 힘을 가진 여성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여성에 대한 성 정체성을 연관시켜 에로틱한 성적 환상을 느끼고픈 남성들이 탄생시킨 이미지이다⁶⁵⁾. 남성들의 욕망

이 만들어낸 신비한 에로틱 이미지의 여인들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세이렌(Siren)과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자, 요부의 대명사인 판도라(Pandora)가 있다. 또한 숨 막히는 끌림의 클레오파트라(Cleopatra)와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록셀란(Roxelane), 낙원과 맞바꾼 악마의 공범자 이브(Eve)가 있다⁶⁶).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세이렌과 판도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세이렌(Siren)

세이렌은 바위에 앉아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매혹적인 노래로 유혹했던 반인반어의 어린 처녀들이다. 어느 누구도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세이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으며,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⁶⁷.

세이렌의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귀향하는 길에 벌어지는 영웅 오디세우스(Odysseus)의 다양한 모험에서 전해진다. 마녀 키르케(Circe)가 일러준 덕분에 오디세우스와 일행들은 세이렌의 위협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세이레네스(세이렌의 복수형)의 섬을 통과할 수 있었고, 세이레네스는 모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⁶⁸.

세이렌은 욕망에 굶주린 남성을 유혹하는 별거벗은 상반신과 반대로 찢어진 물고기 꼬리를 가져 애석하게도 그 욕망이 그릇됐음을 깨닫게 해주는 반인반어의 모습이다. 그녀의 혼성 육체는 끈질긴 유혹과 거부의 세련된 유희를 상징한다. 세이렌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본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여성인 것이다⁶⁹.

세이렌의 매혹과 공포의 상반된 감정에 화가들은 매료되었다. 가장 유명한

65) 남선미(2004). 전계서, p.3.

66) 이명옥(2008). 전계서, p.12.

67) 마커스 로드윅, 유영석 외 역(2003). 신화와 미술 성서와 미술, 경기: 아트나우, p.111.

68) 김길웅 외 6명(2011). 신화와 사랑,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p.208-209.

69) 빅 드 동테르, 김병욱 역(2002). 세이렌의 노래, 서울: (주)시공사, p.95.

그림은 선정적인 요소가 많이 표현된 존 윌리엄스 워터하우스(John William Waterhouse, 1849-1917)의 ‘인어(Mermard)’이다<그림 5>.

<그림 5>를 보면 매혹적인 인어가 깊은 바닷가에서 해풍을 맞으며 황금 빛 머리카락을 빗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눈부신 금발과 하체를 휘감은 촉촉해 보이는 물고기 꼬리가 더 없이 매혹적으로 보인다. 또한 검푸른 색상의 바닷가와 새하얀 알몸의 강렬한 대비로 세이렌의 선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해 준다⁷⁰⁾.

중세에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과 머리빗 그리고 거울은 창녀를 은유하는 상징물이었다. 따라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는 그림 속 인어는 음탕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워터하우스는 여자에 대한 남성의 욕망을 인어의 머리카락에 투영한 것이다⁷¹⁾. 잡으면 만져질 것만 같은 살결과 매끈한 꼬리 그리고 그녀의 고풍적인 표정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에로티시즘(Eroticism)을 부추긴다.

<그림 6>은 프레데릭 레이턴(Lord Frederic Leighton, 1830-1896)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도 세이렌은 뱀사공으로 보이는 한 남성에게 매달려 몸을 바짝 밀착한 채 그를 유혹하고 있다. 상체를 바짝 밀착하여 만들어진 세이렌의 몸 라인이 그녀를 더욱 더 요염하게 만들어주며, 이 남성은 뉘이 나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장해제 되어있는 듯이 보인다.

<그림 5>와 <그림 6> 두 작품에서 보이듯이 세이렌은 주위 배경과 대비되는 높은 명도의 피부 표현으로 여성의 육체가 극적으로 부각되어 더욱 더 유혹적으로 비춰진다.

70) 남선미(2004). 전계서, p.25.

71) 이명옥(2008). 전계서, p.184.



<그림 5> 인어(1892-1900),
존 윌리엄스 워터하우스 작
(빅 드 동데르, 김병욱 역(2002), p.96)



<그림 6> 어부와 세이렌(1892),
프레데릭 레이턴 작
(이명욱(2008), p.176.)

(2) 판도라(Pandora)

판도라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에게 분노한 제우스(Zeus)가 인간들을 징벌하기 위해 만든 인물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Hephaistos)를 통해 빚어낸 최초의 여자이다.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 라는 뜻의 판도라는 신들의 도움으로 갖가지 매력을 갖춘 여자로 탄생한다⁷²⁾. 제우스는 그녀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Epimetheus)에게 보내고, 결혼하게 된 둘에게 절대 열어 보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며 선물상자를 보낸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판도라는 결국 상자를 열게 되고, 그 순간 질병, 가난, 불행 등 수많은 재앙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서둘러 상자를 닫았지만 인류를 파멸에 빠트릴 재앙들은 이미 죄다 밖으로 나왔고, 유일하게 ‘희망’ 하나만 나오지 못했다. 인간이 갖가지 불행에 시달리

72) 한대균(2011).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을 읽다.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pp.84-85.

면서도 희망 하나에 매달려 사는 것이 바로 판도라가 이것 하나만을 상자에
가둘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⁷³).

화가들은 판도라를 더없이 매혹적인 여인으로 묘사하였는데, <그림 7>은
존 윌리엄스 워터하우스(John William Waterhouse, 1849-1917)의 작품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금지된 것들에 대한 호기심
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판도라가 충동에 못 이겨 상자를 열지만 다 열어보지
못하고 ‘살짝만 들여다보고 다시 닫아 놓으면 괜찮겠지’ 하는 심리를 묘사하
고 있다⁷⁴). 또한 판도라의 맨발과 하늘하늘한 옷차림새, 어깨 밑으로 흘러내
린 상의로 인해 드러난 하얀 속살과 보일 듯 말 듯 한 가슴이 판도라를 신비
하고 매혹적인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 1828-1882)의
작품으로 판도라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중
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상자 안에서 새어나온 불길 같은 연기의 소용돌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⁷⁵). 이처럼 판도라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남성들은 평
생을 재앙 속에서 살아간다. 판도라는 불행의 씨앗이 되어 팜므 파탈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에 꾸준히 남성들의
사랑을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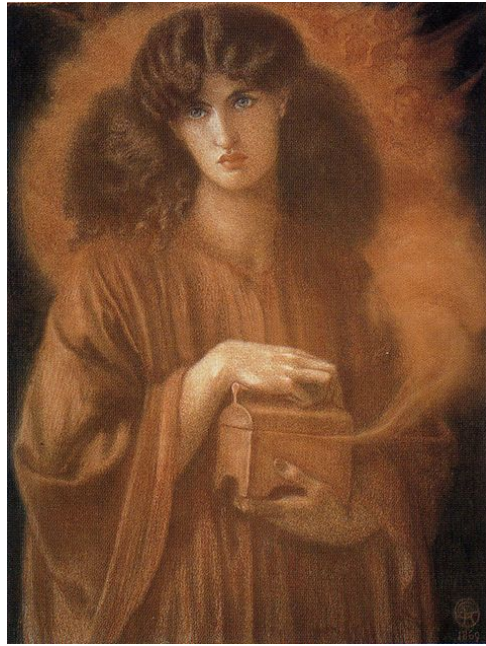
73) 베르나르 베르베르, 임호경 외 저(2011).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경기: (주)열린책들,
pp.205-206.

74) 명화속 여성: 존 윌리엄스 워터하우스-판도라, 세계일보, 2007.09.0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7/08/28/20070828001438.html>, 검색일 2014.04.05.)

75) 엘릭젠더 스티지스 외, 권영진 역(2007), 주제로 보는 명화의 세계, 서울: 마로니에북스, p.140.



<그림 7> 판도라의 상자(1896),
존 윌리엄스 워터하우스 작
(토마스 불핀치, 김선영 역(2011), p.21.)



<그림 8> 판도라(1869),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작
(차기태(2014), p.343.)

이와 같이 19세기 회화에서 표현된 신비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세이렌과 판도라라는 여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남성들을 유혹하여 죽음으로 이끄는 세이렌과 남성들을 평생 재앙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랑받는 신비하고 매혹적인 여인 판도라를 통하여 신비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신비’, ‘오묘’, ‘환상’, ‘파력’, ‘추상’, ‘청초’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3) 음탕한 이미지

음탕한 이미지는 섹시한 자태와 도발적인 표정 등 숨을 멎게 하는 요소들을 갖춘 여인이 남성을 성적 매력으로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여성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여성을 단지 성적 쾌락의 도구인 육체에만 탐닉하는 남성들의 속성을 저주하고, 지배당하는 성에서 지배하는 역할로 탈바꿈하

기 위해 나타난 이미지이다⁷⁶⁾.

음탕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 여인 중에는 남자에 굶주린 밤의 마녀 릴리트(Lilith)와 음란한 쾌락의 황후 메살리나(Messalina) 그리고 돈과 성욕의 노예 데릴라(Delila)와 성서 속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음녀(淫女) 옴팔레(Omphale), 남성들을 애욕의 늪에 빠트리는 창녀 나나(Nana)⁷⁷⁾, 이렇게 강한 음기로 남성을 홀리는 여인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릴리트와 메살리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릴리트(Lilith)

많은 사람들이 아담(Adam)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브를 인류 최초의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담과 동시에 태어난 ‘릴리트’라는 여인이 인류 최초의 여자이다. 그녀는 아담처럼 진흙과 하느님의 숨결에서 나왔으며 그와 대등한 여자이다. 그녀는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욕망이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여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아담과의 성행위에서 여성 하위 체위가 싫어 상위 체위를 요구했다가 그와 다투게 되고⁷⁸⁾, 평등한 성생활이 없다면 에덴동산(The Garden of Eden)도 행복한 곳이 아니라며 집을 나온다. 신은 천사 세 명을 보내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의 자식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의 악마와 결혼해 괴물들을 낳는 마녀가 된다⁷⁹⁾. 그녀는 혈기왕성한 남자애들의 꿈속에 나타나 밤마다 그들을 몽정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정액을 자신의 자궁에 집어넣어 계속해서 더 많은 악마를 배출했다. 이때부터 릴리트라는 이름은 마녀(魔女), 색녀(色女), 밤의 괴물 등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팜프 파탈 이미지에 매료되었던 예술가들은 릴리트를 육욕의 화신, 저주받은 요부로 묘사하여 매혹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⁸⁰⁾.

76) 남선미(2004). 전계서, p.22.

77) 이명옥(2008). 전계서, p.13.

78) 베르나르 베르베르, 임호경 외 역(2011). 전계서, p.165.

79) 이동현(2009). 전계서, p.168.

존 콜리어(Hon Jhon Collier, 1850-1943)의 작품 <그림 9>는 뱀을 관능적으로 휘감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아담을 유혹한 릴리트를 연상시킨다. 커다란 뱀을 몸에 감고 도취된 듯 한 그녀의 표정은 뱀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듯 하다⁸¹⁾. 오히려 뱀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마치 흉측한 동물인 뱀처럼 릴리트도 위험한 여성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릴리트의 관능성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작품 <그림 10>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릴리트는 1868년 이 작품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 작품은 세기말 팜프 파탈의 아이콘이 되었다⁸²⁾.

<그림 10>을 보면 릴리트가 거울을 보면서 긴 머리카락을 빗는 매혹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묘사하였는데, 손에 들고 있는 거울을 보고 금발의 머리를 빗으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나르시시스트(Narcissist)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부신 미모에 홀려 줌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듯 한 모습이다. 불 꺼진 초 곁에 있는 창문 모양의 거울 안에는 에덴동산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탁자 위에는 하트 형태의 핑크빛 병이 놓여 있다. 이 병은 여인에게 홀려 희생자가 된 남성의 심장을 은유하며 배경 속 장미는 ‘사랑’과 ‘정열’을, 양귀비는 ‘잠’과 ‘죽음’을 상징한다⁸³⁾. 마치 그림에 나타난 소도구들이 아름다운 여성에게 홀려버린 남성들에게 앞으로 닥칠 불행을 예고하듯 느껴진다.

<그림 9>, <그림 10>에서 보이듯이 여자의 상징인 긴 머리와 내리깐 눈, 그리고 약간 가우똥하게 넘긴 고개로 인해 시선이 가는 목선에서 여인의 관능미가 느껴진다.

80) 이명옥(2008). 전개서, pp.255-257.

81) 엘릭젠더 스티지스 외, 권영진 역(2007). 주제로 보는 명화의 세계, 경기: 마로니에북스, p.141.

82) 이명옥(2008). 전개서, pp.257-259.

83) 윤보원(2005). 전개서, p.26.



<그림 9> 릴리트(1887),
존 콜리어 작
(엘릭젠더 스티지스 외, 권영진 역(2007),
p.141.)



<그림 10> 레이디 릴리트(1868),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작
엘케 린다 부호홀츠 외, 엄미정 역(2008),
p.340.

(2) 메살리나(Messalina)

메살리나는 현대 이탈리아어로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남자들과 동침하는 몸가짐이 험폰 여자’를 의미한다⁸⁴).

그녀는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Claudius)의 세 번째 황후로 성욕이 무척 강하며 굉장히 음탕한 여인으로 전해진다. 메살리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잠이 들면 황금 가발을 쓰고 왕궁을 빠져나가 악취가 도는 유곽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뤼키스카(Lycisca)라는 이름으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금가루를 바른 자신의 젖가슴을 보여주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곤 했으며 비천한 남자와 살을 섞었다. 성애적인 성격의 그녀는 젊은 연인을 궁

⁸⁴) 이명옥(2008). 전계서, p.329.

전으로 불러들이기도 했고, 남편이 없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참금을 내면서까지 결혼식을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남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는 죽음을 맞이한다⁸⁵).

<그림 11>은 토마스 쿠투르(Thomas Couture, 1815-1879)의 작품으로 로마시대의 타락상을 묘사한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쿠투르는 주색에 빠진 로마인들의 유흥 장면을 그림에 그대로 재현해 로마제국의 성도덕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알몸의 많은 남녀가 서로 뒤엉켜 있으며,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듯 각자 상대에게만 집중하여 욕정을 나누는 듯 보인다. 메살리나는 로마의 성적 타락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히영심’과 ‘물욕’, ‘성욕’의 화신이다. 성적인 불만족을 부도덕한 방식으로 해소한 전형적인 당녀 메살리나는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킨 남자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으며, 그러지 못한 남자는 잔인하게 살해했다⁸⁶).

<그림 12>는 오브리 비어즐리의 작품으로 섹스의 화신 메살리나가 욕정으로 몸이 달아올라 두 손을 불끈 쥐고 입은 앙다문 채 풀어헤친 젖가슴 그대로 궁정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다. 그녀를 뚱뚱하고 심성이 고약한 여자로 표현한 것은 그녀가 남자를 밝히는 타락한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⁸⁷). 그녀의 매서운 눈은 욕망에 눈이 뒤집힌 음탕한 속내를 나타내주고, 그림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욕구 불만에 빠진 메살리나의 성욕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85) 번 빌로 외, 서석연 외 역(1992). *메추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까치, pp.100-101.

86) 이명옥(2008). *전계서*, pp.327-329.

87) *상계서*, pp.323-324.



<그림 11> 타락한 로마인들(1874),
토마스 쿠투르 작
(이명옥(2008), p.328.)



<그림 12> 메살리나(1897),
오브리 비어즐리 작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 이하림 역(1999),
p.140.)

이와 같이 19세기 회화에서 표현된 음탕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성서 속 인물 릴리트와 로마시대 실존 인물 메살리나를 통해 살펴보았다. 능동적으로 성을 주도하여 남성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육육의 화신 릴리트와 욕정에 굶주려 쾌락을 즐기는 음탕하고 타락한 여인 메살리나를 통하여 음탕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음탕’, ‘퇴폐’, ‘관능’, ‘섹시’, ‘욕정’, ‘쾌락’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4) 매혹적인 이미지

매혹적인 이미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미모’로 남성들을 사로잡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절세미녀들의 이미지이다. 완벽한 아름다움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많은 남성들은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 생을 불

태워버리지만 그녀들은 완벽한 미모로 죄악까지 용서받는다. 남성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매혹적인 이미지의 팜므 파탈 여인들은 낚을 빼앗는 전설적인 아름다움의 프리네(Phyrine)와 신도 질투한 절대적 아름다움의 헬레네(Helene) 그리고 섹시한 여성미의 원형 아프로디테(Aphrodite)와 두 남자를 사로잡아 위험한 이중생활을 하는 엠마 해밀턴(Emma Hamilton) 등이 있다⁸⁸⁾.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프리네와 헬레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리네(Phyrine)

프리네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Athens)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명하며, 가장 위험한, 그 당시 ‘헤타이라(Hetaera)’라고 불리는 고급 창부였다. 프리네는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당대의 조각가들은 그녀를 모델삼아 여인상을 조각했을 정도이다⁸⁹⁾.

프리네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한번은 그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알몸을 드러내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정부이자 변호인 휘페레이데스(Hypereides)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재판 도중 그녀의 옷을 벗겨 배심원들에게 알몸을 드러내게 했고, 그녀의 눈부신 알몸을 눈앞에서 본 배심원들은 모두 낚을 잃어버렸다. 배심원들은 프리네의 아름다움은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공개적인 자리였어도 알몸을 드러낸 그녀가 신을 모독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⁹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프리네는 결국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을 받는다. 당시에는 신체적인 미가 바로 신성성의 표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⁹¹⁾.

88) 이명옥(2008). 전계서, p.13.

89) 번 벨로 외, 서석연 외 역(1992). 전계서, pp.80-81.

90) 이연식(2011). 아트파탈,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p.16-19.

91) 김복래(2013). 전계서, pp.80-81.

이 전설적인 일화는 여인의 아름다운 누드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힘을 발휘하는지 생생하게 증명해준다.⁹²⁾

<그림 13>은 헨릭 헥터 지미라즈키(Henryk Hector Siemiradzki, 1843-1902)의 작품으로 ‘포세이돈 축제 때의 누드쇼 사건’을 직접 본 듯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화면 한가운데 알몸을 드러낸 여인이 바로 프리네이다. 그녀는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마치 자신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인 양 분장하여 물에서 탄생했다는 듯 아프로디테의 신화를 재현했기 때문이다. 작품 속 프리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하나하나 벗어 알몸이 되어 가고 있고, 허벅지에 걸쳐진 옷이 곧 땅으로 흘러내릴 것만 같다. 이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더 환호하며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다⁹³⁾. 아프로디테를 연상케 하는 콘트라포스트 포즈는 그녀의 알몸을 더욱 더 우아하게 보이게 해주며, 모두들 아름다운 그녀에게 빠져들어 정말 그녀가 아프로디테인 양 착각하고 있는 듯 한 장면이다.

<그림 14>는 장 레옹 제롬(Jean-Léon Gérôme, 1824-1904)의 작품으로 당시 법정에서의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프리네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알몸을 드러내 재판을 받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알몸이 수치스러운 양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몸매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콘트라포스트 포즈를 취하는 모습에서 배심원들을 유혹하겠다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배심원들은 그녀의 알몸에 황홀한 충격을 받고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으며, 이 작품은 여인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갖는 무한한 힘과 미녀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남성의 속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배심원들이 붉은색 옷을 입은 것도 그들이 성적으로 흥분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성과 감정’, ‘법과 미모’의 대결에서 아름다움이 깨끗한 한판승을 거둔 것이다⁹⁴⁾.

92) 이명옥(2008). 전개서, p.385.

93) 이주현(2011). 역사의 미술관, 경기: (주)문학동네, pp.176-177.

만인의 연인이 된 프리네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만큼 빛났으며, 그 어떤 남성도 이 아름다움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포세이돈 축제의 프리네(1843-1902),
헨릭 헥터 지미라즈키 작
(이주현(2011), pp.174-175.)

<그림 14> 배심원들 앞에 선 프리네(1861),
장 레옹 제롬 작
(이연식(2011), p.18.)

(2) 헬레네(Helene)

헬레네는 그리스 최고의 미녀였다. 끝없는 염문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그녀가 가진 아름다움이라는 무기가 모든 의혹과 실수를 덮어주었다⁹⁵). 그녀는 열두 살 소녀시절부터 청혼이 쏟아지는가 하면,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트로이전쟁의 발단이 되는 등 그녀의 미모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⁹⁶). 헬레네에게는 결혼하겠다는 구혼자들이 넘쳐났는데 그녀는 그 중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Menelaos)를 선택했고, 헤르미오네(Hermione)라는 딸을 낳고 평탄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하면서 그녀의 10년간의 결혼생활은 단 10일 만에 무너지고 만다. 그녀는 남편이 잠시 스파르타를 비운 사이 남편의 보물을 몽땅 챙겨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도망친다⁹⁷). 남편은 분노했고, 그와 함께 헬레네에게 구혼했던

94) 이명옥(2008). 진계서, pp.390-391.

95) 구본형(2013). 구본형의 그리스인 이야기, 서울: (주)상지피엔아이, pp.206-207.

96) 함연진(2010). 이미지와 상상력-그리스 로마신화를 찾아서, 서울: 글누림출판사, p.191.

97) 장영란(2005). 그리스 신화, 경기: 살림출판사, pp.382-388.

영웅들은 그녀를 찾아오기 위해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다⁹⁸).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 되었고 결국 파리스는 전사했으며, 메넬라오스는 헬레네를 다시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줄곧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고, 그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메넬라오스는 단칼에 그녀를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한 쪽 가슴을 드러내어 유혹하는 헬레네를 보고는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그만 칼을 떨어뜨리고 만다⁹⁹).

헬레네가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완벽한 미모를 지녔다는 단 한 가지 이유이다. 그녀가 예술 작품 속에서 팜므 파탈의 원형이 된 것은 그토록 아름다운 용모 속에 타락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부신 미모로 많은 남자들의 생을 허망하게 소진하게 만들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헬레네의 이야기는 여자의 미모가 처참한 전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준다¹⁰⁰).

<그림 15>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작품으로, 그의 작품 속 헬레네의 모습은 호흡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 작품은 화면 전체를 눈부신 황금색 색조로 통일하였는데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한 로제티의 의도가 느껴진다. 눈부신 그녀는 풍성한 금발에 매혹적인 붉은 입술, 화려한 장신구가 더해져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데¹⁰¹), 재앙을 부른 여자 헬레네는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문인, 예술가들은 앞 다투어 헬레네의 빼어난 미모를 작품에 묘사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림 16>의 앙리 팡탱 라투르(Henri Fantin-Latour, 1836-1904)도 마찬가지였다. 이 그림에서 보면 절세미녀 헬레네는 많은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헬레네는 수많은 구혼자 중에서 단 한사람만 선택해야하는 것이 유일한 고민이요 비극이었다¹⁰²). 자신의 미모를 알고 있는 듯 헬레네는 여유롭게 누워

98) 게르하르트 핑크, 이수영 역(2012). 후WHO: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들, 서울: 도서출판 애경, p.531.

99) 상계서, pp.413-429.

100) 한수경(2006). 전계서, p.33.

101) 이명옥(2008). 전계서, p.353.

102) 상계서. p.348.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이 즐거운 듯 미소 지으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림 15> 트로이의 헬레네(1863),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작
(이명옥(2008), p.352.)

















<그림 16> 헬레네(1819),
앙리 팡탱 라투르 작
(이명옥(2008), p.349.)

이와 같이 19세기 회화에서 표현된 매혹적인 이미지의 팜므 파탈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실존 인물 프리네와 신화 속 인물 헬레네를 통해 살펴보았다. 죄를 저지르고도 눈부신 외모로 당연시 용서받는 매혹적인 여인 프리네와 불행의 씨앗으로 수많은 남성들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절세미녀 헬레네를 통하여 매혹적인 팜므 파탈은 ‘매혹’, ‘유혹’, ‘요염’, ‘미모’, ‘도취’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처럼 19세기 서양 회화 속에 나타난 ‘잔인, 신비, 음탕, 매혹’에 해당하는 팜므 파탈 이미지의 여성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특성을 <표 1>로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세기 회화 속에 표현된 팜프 파탈 이미지의 특징

여성상	잔인한 이미지		신비한 이미지		음탕한 이미지		
인 물	살로메 (성서 속 인물)	메테이아 (신화 속 인물)	세이렌 (신화 속 인물)	판도라 (신화 속 인물)	릴리트 (성서 속 인물)	메살리나 (실존 인물, 서기 22-48)	메살리나 (실존 인물, 서기 22-48)
특 징	사랑하는 남자를 가질 수 없다면 파멸시켜버리는 잔혹한 욕정의 여인	남편의 배신으로 자식까지 살해하는 질투와 복수의 화신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남성들을 유혹하여 죽음으로 이끄는 신비스런 여인	남성들을 평생 재앙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어도 꾸준히 사랑받는 신비하고 매혹적인 여인	능동적으로 성을 주도하여 남성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육욕의 화신	욕정에 굶주려 쾌락을 즐기는 음탕하고 타락한 여인	죄를 눈부신 당연시 매혹
이미지	잔인, 분노, 파괴, 죽음, 복수, 사악, 공포		신비, 오묘, 환상, 마력, 추상, 청초		음탕, 퇴폐, 관능, 섹시, 욕정, 쾌락		
작 품							
							

Ⅲ. 한국 영화 속 팜프 파탈 캐릭터 분석

1. 영화의 선정 기준

예술가들의 발명품인 팜프 파탈의 이미지는 오늘날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性)을 상품화한 섹시한 여인상을 형성하는 데 충분히 기여했다¹⁰³⁾.

팜프 파탈이라는 여인상은 현대의 영화사에서 큰 비중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는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배우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모방한다. 특히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 등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대중들에게 크게 부각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⁰⁴⁾.

본 연구 대상으로 2000년 이후의 한국 영화 중 앞서 정의내린 팜프 파탈의 4가지 여성상에 부합하면서 캐릭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 영화를 1편씩 선정하였다.

팜프 파탈의 4가지 여성상 중 ‘잔인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로는 13년 동안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고 잔인하게 복수를 실행하는 여자 이금자(이영애 역)가 등장하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2005)’를 선정하였다.

‘신비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영화로는 신비한 눈빛과 매력으로 남성 스스로 매료되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여인 황진이(송혜교 역)가 등장하는 영화 ‘황진이(2007)’를 선정하였다.

‘음탕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영화로는 자신의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성적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음탕한 여인 김수진(박시연 역)이

103) 이명옥(2008). 전계서, p.10.

104) 김성일 외(2006). 전계서, p.80.

등장하는 ‘간기남(2012)’을 선정하였다.

‘매혹적인 이미지’에 해당하는 영화로는 미모로 남성들을 유혹하여 이용하는 매혹적인 사기전과범 차하연(전도연 역)이 등장하는 ‘카운트다운(2011)’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 선정한 4가지 영화 속에 표현된 팜므 파탈 캐릭터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을 고찰 및 분석하고자 한다.

2. 영화 속에 표현된 팜므 파탈 캐릭터

1) 잔인한 이미지 - 친절한 금자씨(2005)

(1) 작품 개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2005)’는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로 2005년에 개봉되었다. 배우 이영애(이금자 역)와 최민식(백선생 역)의 주연으로 장르는 스릴러, 드라마이다. 이 영화는 한 여자의 분노가 자신의 악한 본성을 깨워 잔인한 복수로 이어지게 하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리틀맘으로 살아가던 이금자는 스무 살 어린나이에 아동 유괴 살인죄로 교도소에 가게 된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역하게 된 그녀는 항상 웃는 얼굴로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친절한 금자씨’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러나 친절을 베풀 이유는 복수를 위한 사전 계획일 뿐이었으며, 그녀는 출소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복수를 시작한다. 그녀가 복수하려는 인물은 그녀의 아이를 볼모로 자신에게 살인죄를 뒤집어씌운 백선생이다. 13년 전 이금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백선생의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썼던 것이다. 복역시절 함께 했던 동료들은 그녀가 친절을 베풀며 자신들을 도왔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의 복수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녀는 결국 백선생을 무참하게 죽이고 처절하게 복수한다.

<그림 17>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2005)’의 메인 포스터이다. 컬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강한 대비감을 주는 두 컬러와 과감함이 느껴지는 붓 터치, 그리고 뒤돌아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복수를 꿈꾸는 이금자의 비장함이 느껴진다.



<그림 17> 영화 ‘친절한 금자씨(2005)’ 포스터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8766>, 검색일 2014.04.20)

(2) 캐릭터 특징 - 이금자 역(이영애)

이영애가 역할을 맡은 캐릭터 이금자는 그녀가 저질렀다는 참혹한 범죄 현장에서 눈부신 미모로 언론의 유명세를 치르게 된다. 그녀가 교도소로 수감될 때 입었던 물방울 원피스<그림 18>가 유행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의 이금자는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13살이나 어린 남자 근식까지 그녀에게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녀는, 백선생을 죽이기 위해 제작한 총에 예쁜 장식을 넣는 등 복수 또한 자신의 외모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금자는 복수를 위해, 13년의 복역 시절동안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는 출소하자마자 복수의 상대를 끔찍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회화 속에 표현된 잔인한 팜므 파탈의 대표적인 여성 살로메와 메데이아처럼 잔인하고 처참하게 복수하는 여인이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격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출소 후 복수를 계획할 때 매일 밤 공주풍의 깨끗한 화이트 컬러 잠옷을 입고 속죄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그림 19>. 이렇게 천사같이 순수한 내면을 가졌지만 그녀는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거부하고 복수의 길을 간다. 또한 복역 시절 복수의 칼날을 감추고는 친절하게 웃으며 13년간이나 모두를 속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이금자는 성녀와 악녀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속 이금자는 출소 전과 출소 후의 확연한 차이로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출소 전의 그녀는 수감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은 듯 한 모습으로 본연의 피부처럼 깨끗한 얼굴로 표현되어 있다. 헤어스타일도 긴 생머리의 단정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라 팜프 파탈의 시각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순수한 여자로 비춰진다.

본 연구에서는 팜프 파탈 이미지가 엇보이는 출소 후의 이금자를 다음과 같이 고찰 및 분석하였다.



<그림 18> 교도소에 가는 이금자



<그림 19> 기도 중인 이금자

(3) 메이크업

눈은 인상을 좌우할 정도로 얼굴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이섀도의 컬러나 아이라이너의 굵기와 길이 등 아이 메이크업만으로도 지극히 다른 인상의 얼굴을 만들어 준다.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는 이금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 장면 이고, <그림 23>, <그림 24>는 이금자의 눈과 입만 클로즈업 된 장면이다.

5가지 그림 모두에서 비인간적으로 차가운 듯 보이는 레드 컬러의 아이새 도가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영화 속에서 이금자는 ‘친절해 보일까봐’ 새빨간 아이새도를 발랐다고 한다. 아이홀 부분까지 넓게 펴 바른 아이새도의 컬러, 레드 는 주목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강렬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짜늘한 느 내을 전한다. 레드 컬러는 많은 영화와 예술 작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 여지고 있는데, 의미로는 ‘증오’와 ‘분노’, ‘광기’, ‘전쟁’, ‘불’과 ‘위협’을 나타내 며, ‘권력’과 ‘힘’의 상징이기도 하다¹⁰⁵⁾. 레드 컬러만으로도 연약한 한 여인이 힘없는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분노로 가득 찬 복수를 꿈꾸는 잔인한 욕망이 느껴지며, 한편으로는 이금자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 것 같다.

포인트를 준 아이 메이크업이 돋보이도록 피부는 매트한 텍스처로 깨끗하 게 표현하였고, 자연스러운 일자 형태의 눈썹에 속눈썹 또한 마스카라로 살 짝 터치해 주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또렷한 눈매를 위해 리퀴드 형태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눈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려주었고, 입술 은 본연의 색에 가까운 핑크 계열로 표현하여 눈 이외 시선이 가지 않도록 연출하였다.



<그림 20> 총을 주문할 때



<그림 21> 근식과의 성관계 후

105) 이문철(2003). 어떤색이 좋을까? Color Combination, 서울: (주)영진닷컴, p.20.



<그림 22> 복수를 감행하기 전



<그림 23>
이금자의 눈



<그림 24>
이금자의 입

이와 같이 이금자의 메이크업은,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흔히 쓰이지 않는 레드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개성 있지만 자극적이며 다소 괴기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로테스크(Grotesque)한 스타일로 연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레드 컬러가 주는 섹시한 느낌으로 인해 팍팍 파탈적인 느낌이 살아났음을 알 수 있다.

(4) 헤어스타일

<그림 20>, <그림 21>은 출소 후 이금자가 백선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연출되는 장면이다. 그림에서 보이듯 출소 후 이금자는 어깨길이 정도의 전체적으로 굵게 웨이브진 스타일로 자주 등장하는데, 짙은 블랙의 굵은 웨이브가 마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메두사를 연상시킨다.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머리카락이 꿈틀거리는 뱀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메두사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돌로 변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려진다¹⁰⁶⁾. 복수로 가득 찬 이금자의 욕망이 헤어스타일에서도 느껴지는 듯 하다.

<그림 22>는 백선생에게 복수를 감행할 때의 장면으로 무심한 듯 하나로 질끈 묶은 헤어스타일이 강한 복수의 의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심리를 나타내

106) 케르하르트 펑크, 이수영 역(2012). 전계서, P.106.

는 듯 하다.

이와 같이 이금자의 헤어스타일은, 긴 생머리와 어깨 길이의 굵게 웨이브진 스타일, 무심한 듯 하나로 묶은 스타일 등의 몇 가지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컬러는 진한 블랙 컬러 하나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메이크업에서 눈 외 다른 부분에는 컬러를 쓰지 않아 레드로 붉게 물든 눈두덩이만을 강조하였듯이, 헤어스타일에서도 아이 메이크업만을 강조하기 위해 컬러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랙 컬러가 가진 ‘어둠’과 ‘죄악’ 혹은 ‘억압’과 ‘공포’ 또는 ‘시작’과 ‘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¹⁰⁷⁾로 인해 잔인한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의상

<그림 25>는 딸 제니와 함께 그녀의 집에 머무를 때의 장면이다. 그녀는 출소 후 호주로 입양된 딸을 만나러 갔다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녀가 입고 있는 무릎길이의 플레어스커트 형태의 실크 원피스는, 여러가지 컬러의 직사각형이 연속적으로 프린팅 되어 복고적인 느낌을 준다. 13년 전 딸과 함께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잃어버린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딸 제니에 대한 모성애를 나타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림 26>은 버건디 컬러의 셔링(shirring)이 잡힌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 13살이나 어린 남자 근식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의 장면이다. 레드 계열에 속하는 버건디 컬러는 풍부한 색감을 지녀 고풍적이며 섹시한 느낌을 주는데, 매력적인 이금자에게 컬러가 갖는 느낌이 더해져 더욱 더 매혹적인 팜프 파탈의 여인으로 만들어 준다.

107) 유한나 외(2010). 색채와 디자인, 서울: 백산출판사, pp.155-163.



<그림 25> 그녀의 집에서 딸 제니와 함께



<그림 26> 13살 어린 남자, 근식과 함께

<그림 27>, <그림 28>에서 이금자가 입고 있는 톤 다운된 블루 컬러의 모직 코트는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날 때 즐겨 입는 의상이다.

블루 컬러는 엄청난 힘을 지닌 ‘종교적인’ 컬러라고 할 수 있다. 한없는 사랑을 갈구하는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고독의 세계에서 느끼는 내면의 조용함을 나타내는 컬러이기도 하다. 또한 ‘기적’, ‘꿈’ 그리고 ‘신뢰’를 상징하기도 한다. 농도에 따라 다른 의미를 주는 블루 컬러의 톤 업 된 블루는 ‘편안함’과 ‘자유로움’, ‘통쾌함’을 의미하지만, 톤 다운된 블루는 ‘슬픔’과 ‘우울함’, ‘고통’과 ‘절망’ 또는 ‘재생’을 의미한다¹⁰⁸). 이금자가 13년간의 복역시절 동안 느꼈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의미로 보인다. 톤 다운된 블루는 우울한 이금자의 기운을 전하며 13년간 복수만을 꿈꾸며 살아온 그녀와 잘 매치되는 컬러이다.

108) 하랄드 브랩, 이재만 역(2010). 색의 힘, 서울: 도서출판 일진사, pp.52-72.



<그림 27> 형사를 찾아간 빵집에서



<그림 28> 감방 동기와 함께

<그림 29>, <그림 30>은 백선생에게 유괴 당했던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백선생에게 무참히 복수를 감행할 때 입은 의상이다. 올 블랙의 의상이 마치 죽음을 이끄는 듯 한 암시를 주며 비장함마저 든다.

블랙 컬러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죽음’, ‘죄악’, ‘공포’, ‘주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무채색으로 정서적인 행동이 결여되고 자유로운 감정 흐름이 없는 컬러라고 볼 수 있다¹⁰⁹⁾.

이처럼 부정적 의미로서의 블랙 컬러 의상을 착용한 이금자의 모습은, 가죽 부츠 위에 광택 소재의 타이트한 가죽 코트가 마치 여전사를 연상시키며, 잔인한 복수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부각시킨다.



<그림 29> 복수를 하러 가서



<그림 30> 백선생에게 총을 겨누며

109) 조규화(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p.271.

전체적으로 이금자의 의상은, 복수의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데 주로 입고 나오는 톤 다운된 블루 코트의 의미와, 복수를 할 때 입는 블랙의 가죽 의상에서 이금자의 내면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상 또한 헤어스타일에 서처럼 컬러로 전해지는 잔인한 팜프 파탈의 요소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화 ‘친절한 금자씨(2005)’에 등장하는 ‘이금자’라는 캐릭터를 통해 잔인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 스타일을 살펴보았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금자가 사랑하는 딸을 잃게 한 백선생에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질 수 없어 죽음으로 이끈 살로메와 메데이아처럼 잔혹한 요부형의 팜프 파탈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레드 포인트의 아이 메이크업과 메두사를 연상시키는 블랙의 헤어스타일, 복수의 내면을 표출하는 톤 다운된 블루 컬러의 모직 코트와 올 블랙의 가죽 의상에서 잔인한 팜프 파탈의 요소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금자’라는 캐릭터를 통해 살펴본 잔인한 팜프 파탈의 키워드는 ‘잔인’, ‘분노’, ‘파괴’, ‘죽음’, ‘복수’, ‘괴기’, ‘농염’, ‘우울’로 요약된다.

2) 신비한 이미지 - 황진이(2007)

(1) 작품 개요

영화 ‘황진이(2007)’는 장윤현 감독이 만든 영화로 2007년에 개봉되었다. 배우 송혜교(황진이 역)와 유지태(놈이 역)의 주연으로 장르는 사극, 드라마이다. 이 영화는 16세기에 살았던 당차고 아름답던 기생 황진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별당 아씨로 평탄한 삶을 살아오던 황진이는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이 반쪽 양반임을 알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파혼을 당한다. 황진사댁마저 나오게 된 그녀는 별당 아씨로서의 삶을 버리고는 친어미의 인생이었던 화류계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다. 어릴 적 소꿉친구였던 놈이를 내세워 기생 명월의 삶을 시작한 그녀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했으나 양반 시절 두루 배웠던 학

식 덕분에 사대부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최고의 여인이 된다.

<그림 31>은 이 영화의 포스터로 절제된 느낌의 무채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영화 속 황진이는 사대부들도 꿈쩍 못하는 성숙한 여인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에 걸맞게 포스터 속의 황진이를 대범하고 고혹적인 느낌의 여인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1> 영화 ‘황진이(2007)’ 포스터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0311>, 검색일 2014.04.20)

(2) 캐릭터 특징 - 황진이 역(송혜교)

송혜교가 역할을 맡은 캐릭터 황진이는 가부장적이었던 16세기에 살던 여인이지만 21세기의 여성처럼 당당한 현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녀는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대부들과 사또에게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강한 자존심으로 남성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을 믿고 사랑했으며, 깊은 탐구력과 학구열에 불탄 여인이었다.

세상의 위선들을 비웃고 남성들을 농락했던 황진이는 책을 보고 글을 쓰며 지적이고 단아한 모습으로, 남성들은 그런 그녀에게 스스로 매료되어 버린다. 황진이는 교태(嬌態)도 색기(色氣)도 없지만, 신비한 매력으로 많은 남성들을

매료시킨 세이렌과 판도라처럼 고혹적인 신비로 남성들을 사로잡는다.

영화 속 황진이는 신분 변화의 계기로 인해 시각적 특징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이 양반과 기생, 두 계층으로 다르게 연출되어 있다.

기생이 되기 전의 모습인 <그림 32>에서 보이듯이 기생 이전의 모습에서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이 조신하게 살아온 양갓집 규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팜프 파탈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생이 된 후라도 일상 생활에서의 황진이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다<그림 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팜프 파탈의 특징이 시각적으로 잘 나타난 기생의 역할을 하는 황진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찰 및 분석하였다.



<그림 32> 기생이 되기 전 황진이



<그림 33> 기생이 된 후 일상생활에서

(3) 메이크업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16세기에 살았던 기생 황진이를 강한 스모키(Smoky) 메이크업으로 연출한 것이다.

스모키의 사전적 의미는 ‘연기가 자욱한’, ‘연기가 많이 나는’, ‘검은 연기 투성이’이라는 뜻으로¹¹⁰⁾, 스모키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네이비, 그레이, 다크 브라운 등 어둡고 짙은 계열의 컬러로 눈 주변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면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또한 블랙 계열의 짙은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눈 밑 언더라인까지 연결시켜주고,

110)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42f1773c29164714b1c7c15bba5e4a6f>, 검색일 2014.05.10)

점막 부위까지 채워주어 깊고 강한, 도발적인 느낌의 눈매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눈 외 다른 곳엔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표현에 눈썹은 본연의 형태를 살려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볼이나 입술은 가볍게 처리해주는 메이크업이다.

영화 ‘황진이(2007)’는 기존 사극에서 메인 컬러로 쓰였던 레드 계열이 아닌 블랙이 주가 되는, 다소 파격적인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여 도도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황진을 연출하였다.

블랙 컬러는 ‘어둠’과 결부되는 속성이 있으며 ‘악’, ‘생에 대한 부정’, ‘침묵’, ‘죽음’을 상징하고, 다른 의미로는 ‘세련됨’과 ‘우아함’을 상징한다¹¹¹⁾.

영화 속 황진은 블랙을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연출되어, 블랙 컬러가 주는 차갑지만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절제되고 정적인 황진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생이 된 황진의 모습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을 보면 양반 시절 그녀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한 메이크업의 표현으로, 깨끗하면서 촉촉한 피부표현에 T존 부위에는 펄을 가미하여 하이라이트를 주었고, 코의 양 옆이나 광대뼈 밑 등 들어가 보이는 부분에는 어두운 컬러로 채딩을 주어 입체감 있는 얼굴로 만들어 주었다.

눈썹은 블랙에 가까운 컬러로 강한 이미지를 부여해 주었지만, 각지지 않은 유선형의 형태로 그려 주어 여성스러움은 살려주었다.

황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그림 38>을 살펴보면, 아이 메이크업은 골드 블론즈 느낌의 은은한 컬러의 채도를 발라주어 현대적인 세련미와 모던함을 표현하였고, 또렷한 눈매를 만들기 위해 촘촘하고 풍성한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연출해 주었다. 또한 블랙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눈 밑 언더라인까지 그려주어 또렷한 눈매를 더욱 더 강조해 주었으며, 눈꼬리 라인을 위로 향하게 그려주어 도도하고 섹시한 이미

111) 김정시(2006).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

지를 더해 주었다.

립 메이크업은 아이 메이크업과 마찬가지로 레드 계열의 컬러가 아닌, 입술 본연의 컬러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핑크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였다. 립글로스를 이용해 글로시하고 볼륨감 있는 입술로 연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욱 더 현대적인 느낌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다.

볼은 피치 컬러의 치크로 밍그레하게 터치해 주어 요염한 기생으로서의 느낌 또한 전해진다.



<그림 34> 기생이 된 황진이_1



<그림 35> 기생이 된 황진이_2



<그림 36> 벽계수를 조롱할 때



<그림 37>
기생 황진이의 헤어_1



<그림 38> 서화담을 만나러 가는 길



<그림 39>
기생 황진이의 헤어_2

이와 같이 황진이의 메이크업은, 사극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스타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인 정통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여 현 시대 팝트 파탈의 도도한 여성상을 보는 듯 하다. 내추럴하면서도 강한 스모키 메이크업의 표현만으로도 천한 신분의 기생이지만 고급스럽고 위풍당당한 여인의 모습이 연출되었다.

(4) 헤어스타일

기생이 된 황진이의 헤어스타일은 땅아 엷은머리인 가체를 쓰고 나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의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호사스러운 느낌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존 사극 영화에 나오는 가체와는 달리 천을 이용하여 현대적인 창작의 요소를 많이 가미하였다.

<그림 34>, <그림 3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고리와 같은 컬러인 그린 컬러의 천을 매치해주어 통일감을 주었으며,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의 가체로 연출해 주었다.

<그림 36>, <그림 37>을 보면, 블랙의 천으로 만들어 준 머리 상단 부분의 꽃 장식과 무심한 듯 꽂아 준 깃털 모양의 장식이 화려함을 더해준다. 하

단 부분 뺀 머리에 둘둘 감은 바이올렛 천 장식을 고름과 같은 컬러<그림 40>로 매치해주었고, 실버 컬러의 뒤꽂이 또한 저고리에 새겨져있는 문양과 같은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호사스러움을 준다. 또한 앞머리를 조금 내린 헤어스타일로 다른 가체와 차별성을 주었는데, 한쪽만 웨이브지어 내린 앞머리에서 요염함이 느껴지는 듯 하다.

<그림 38>, <그림 39>는 앞서 본 가체처럼 뒤꽂이는 꽃아 주었지만, 천 대신에 쇠붙이 핀 장식을 사용하여 조금 다른 느낌으로 장식해 주었다. 많은 컬러를 사용하지 않아 무게감 있고 위엄한 기품이 느껴지는 스타일이다.

이처럼 황진이의 헤어스타일은, 기생의 대표 컬러인 레드 컬러의 장식이 사용되지 않아 익숙한 느낌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의 새로움으로 전해지며, 무채색의 신비스런 팜프 파탈 여인 황진이를 더욱 더 부각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5) 의상

영화 속 황진이의 의상은 폭넓고 둥근 일반적인 한복 소매가 아닌, 어깨와 팔 라인에 슬림하게 맞는 형태이며, 고름도 넓이가 얇고 짧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나타나있다.

광택이 나는 등의 소재도 다양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느낌을 보완하였고, 전체적으로 슬림한 형태의 한복으로 실루엣을 돋보이게 해 주어 여성스러운 자태를 부각시켰다.

또한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기생의 상징 색으로 쓰여진 레드 컬러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블랙을 중심으로 화이트, 그린, 블루, 바이올렛을 사용하였다. 중성색의 컬러와 무채색의 어울림으로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을 살리고 절제된 선정미를 극대화시켰다.

<그림 40>은 황진이의 유명한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를 읊을 때 입은 의상으로, 단순한 블랙 치마임에도 불구하고, 비비드한 블루 빛에 광택이 있는

은박의 문양이 고급스럽게 장식된 저고리 덕분에 신비롭고 매혹적인 황진이
의 매력을 한층 살려준다.

<그림 41>은 화려한 느낌을 주는 바이올렛 치마 위에 툰 다운된 바이올렛
과 골드 빛 문양이 어우러진 블랙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다. 바이올렛은 관능
적인 신비감을 나타내며, 고상한 이미지와 육체적 욕망과 연관이 깊은 컬러
로¹¹²⁾, 신비한 팜프 파탈의 여인 황진이에게 잘 매치되는 컬러이다. 또한 너
울을 쓴 모습이 보이는데, 조선시대 기생들은 외출할 때 너울이나 쓰개치마,
장옷 등 머리에 쓰거나 걸치며 장식적 효과와 더불어 기능적 역할, 사회적
직분을 표현하였다¹¹³⁾.

황진이가 쓴 너울은 블랙의 레이스 틀 위에 망사가 석워진 형태로 컬러와
소재에서 섹시한 느낌을 주는 팜프 파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림 42>는 어두운 블랙 치마 위에 빛나는 은박의 꽃문양으로 디테일이
강한 대조를 이루는 의상이다. 짙은 그린 저고리 위에 블랙 문양이 양각화
되어 있어 치마와 함께 어우러진다. 블랙과 그린, 단순한 컬러 대비지만 저고
리와 치마에 새겨진 화려한 문양으로 단조로움을 보완해 주고 있으며, 신비
하고 고고한 느낌의 황진이를 부각시켜 준다.

112) 하랄드 브랩, 이재만 역(2010). 전계서, pp.130-137

113) 이하나 외(2008). “기녀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조선시대부터 개화기까지”, 한국패션뷰티학회지 제6
권 제4호, pp.217-220.



<그림 40>
시조를 읊으며



<그림 41>
너울 쓴 황진이



<그림 42>
기생 황진이의 자태

<그림 43>은 <그림 42>에서 보이는 은박의 꽃문양이 새겨진 블랙 치마가, 저고리로 디자인 된 의상으로, 청아한 블루 빛의 고름과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 치마를 착용한 모습이다.

화이트 컬러의 의미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미로는 ‘순결’, ‘순수’, ‘고귀함’ 등을 나타내며, 부정적으로는 ‘냉정한’, ‘서늘한’, ‘보수적인’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¹¹⁴⁾.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 컬러의 치마를 입은 모습에서 두 가지의 양면적인 내면이 표출되는데, 하나는 양반이었던 자신을 모두 버리지 못하고 아직 기생으로서의 몸과 마음을 갖추지 못한 황진이의 내면을 표현한 듯 보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채 기생의 신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내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4>는 골드 빛 꽃문양이 새겨진 블랙 치마 위에 자잘한 꽃이 가득한 레이스 형태의 시스루(See Through) 스타일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다.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치마와 저고리 모두 블랙의 한복이지만 시스루 형태로 인해 무거운 느낌보다는 섹시한 느낌을 준다. 저고리 속 속살이 살짝 비

114) 유한나 외(2010). 전계서, p.42.

치는 모습에서 매혹적인 황진이의 신비스러움을 살려주었다.



<그림 43> 기생이 된 첫날



<그림 44> 사또와의 하룻밤 후

전체적으로 황진이의 의상은, 메이크업과 같이 블랙 위주의 컬러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컬러는 인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인간의 생리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¹¹⁵⁾. 메이크업과 의상 모두 블랙 컬러를 주로 사용한 점에서 황진이의 고뇌와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신비스럽고 도도한 느낌을 주는 팜프 파탈의 모습을 더욱 더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화 ‘황진이(2007)’에 등장하는 ‘황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신비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 스타일을 살펴보았다. 교태와 색기도 없지만 고풍적인 신비로 남성들을 매료시키는 모습에서, 신비한 매력으로 남성들을 강렬히 끌어들이는 마력의 힘을 가진 세이렌과 판도라처럼 신비한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블랙 위주로 연출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에서 무채색이 주는 고급스러움과 신비스러움으로 인해 신비한 팜프 파탈의 요소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황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살펴본 신비한 팜프 파탈의 키워드는 ‘신비’, ‘오묘’, ‘환상’, ‘마력’, ‘우아’, ‘고혹’, ‘당당’으로 요약된다.

115) 김정시(2006). 전계서, p.8.

3) 음탕한 이미지 - 간기남(2012)

(1) 작품 개요

영화 '간기남(2007)'은 김형준 감독이 만든 영화로 2012년에 개봉되었다. 배우 박시연(김수진 역)과 박휘순(강선우 역)의 주연으로 장르는 스릴러, 코미디이다. 이 영화는 팜프 파탈의 요소를 모두 갖춘 매력적인 한 여인이 자신의 계획대로 한 남자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간통 전문 형사 강선우는 불명예스럽게 간통으로 정직을 당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부업으로 홍신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어느 날 불륜 현장을 덮치기 위해 출동했다가 남녀 한명씩, 두 구의 시체를 목격하게 된다.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강선우 외 죽은 남자의 아내 김수진 뿐이다. 강선우는 그녀와 함께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꼼짝없이 살인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다. 그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진범을 찾아 헤메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사건을 파헤칠수록 매력적인 김수진에게 빠져들어 헤어 나오지 못한다. 사실 두 구의 시체는 김수진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살해 계획에 강선우가 필요했을 뿐 모든 것은 김수진의 계략이었고, 강선우는 그녀에게 완벽하게 이용당한 것이었다. 결국 그의 누명은 벗겨졌지만, 낯선 여자에게 빠져들었던 강선우는 형사라는 신분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그림 45>는 이 영화의 포스터로 김수진의 사람을 빨아들일 듯 한 표정과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아찔한 포즈에서 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빠져들 것을 암시해준다.



<그림 45> 영화 '간기남(2012)' 포스터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88489>, 검색일 2014.04.21)

(2) 캐릭터 특징 - 김수진 역(박시연)

박시연이 역할을 맡은 캐릭터 김수진은 섹시한 자태와 도발적인 표정으로 남성을 성적 매력으로 유혹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팜므 파탈의 여인이다. 욕정의 여인들 릴리트와 메살리나처럼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매료시키는 음탕한 팜므 파탈의 여인이다.

김수진은 변태적인 성 취향을 가진 남편을 제거하기 전에 강선우에게 누명을 씌울 계략을 세우고는 모든 계획 하에 사건을 저지른다. 자신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성적 매력을 풍기며 다가오는 그녀에게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강선우는 점점 그녀에게 도취된다. 그녀는 매혹적인 향기로 수많은 남자들을 매료시키고, 단 한명의 남자도 그녀를 거절하지 못한다. 김수진은 도도하면서도 시크한 섹시미와 매혹적인 포스로 진한 팜므 파탈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인이다.

(3) 메이크업

음탕이라는 기준을 범주화한 팜프 파탈의 요소를 지닌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보통 그 유래와 의미의 특성상 아이새도와 립에 과감한 컬러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자극을 더해주며, 대부분 붉은 입술과 블랙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준다¹¹⁶⁾.

영화 속 음탕한 여인 김수진에게도 붉은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나타나지만,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네이비와 블랙으로 연출한 아이 메이크업과 누드 톤 입술로 어두운 느낌의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어 있다. 김수진의 눈이 클로즈업 된 <그림 49>를 보면 황진이와 깨끗한 느낌의 스모키 메이크업과는 달리, 어두운 컬러의 아이새도로 눈 언더라인까지 그라데이션 해주어 탁하고 어두운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연출되었다.

눈 밑 점막 부분까지 아이라이너로 채워 음영을 준 김수진의 아이 메이크업은 더 깊고 그윽한 눈매로 연출되어 퇴폐적인 섹시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마스카라를 이용해 풍성한 속눈썹으로 연출해주어 눈이 더욱더 부각되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다.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게 표현해주었고, 일자 형태로 그려준 다크 브라운 컬러의 눈썹과 누드 베이지 톤으로 표현해준 입술<그림 50>, 그리고 생략된 블러셔는 전체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만 시선이 가게 한다.

116) 김은하(2007). “국내영화에 표현된 팜프파탈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8권 3호, pp.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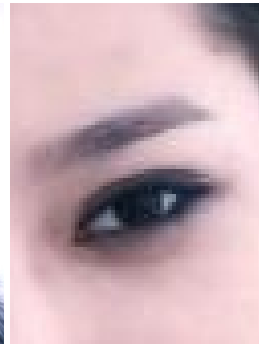
<그림 46> 경찰조사를 받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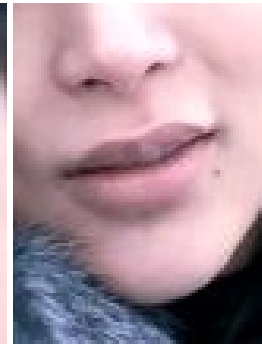
<그림 47> 억울해하는 강선우를 바라보며



<그림 48> 한국을 떠난 후 강선우와의 통화



<그림 49>
김수진의 눈_1



<그림 50>
김수진의 입_1

<그림 51>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의 모습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기쁘지만 거짓 슬픔으로 속내를 감추고 있다. 하지만 ‘본능’을 대표하는 컬러인 강렬한 레드와 립 메이크업이 수진의 음탕한 내면을 드러낸다. 앞서 눈을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과 달리 눈은 짙게 아이라이너만 그려주었고<그림 52>,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입술만 강조하여 연출하였다.

색조 메이크업에서 립 컬러는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는데, 빨강계 포인트를 준 립 메이크업<그림 53>의 연출로 전형적인 관능미가 느껴지며, 레드와 가지고 있는 ‘정열적’이고 ‘자극적’이며 ‘유혹적’인¹¹⁷⁾ 컬러의 느낌이 음탕한 팜프 파탈의 여인을 부각시켜준다.

117) 앰브로즈 외, 김은희 역(2008), 컬러 COLOUR, p.108.



<그림 51> 남편의 장례식 날

<그림 52>
김수진의 눈_2

<그림 53>
김수진의 입_2

이와 같이 김수진의 메이크업은, 네이비와 블랙 컬러의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한 음영을 준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인해 음탕한 그녀의 퇴폐적인 섹시미를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고, 전형적인 관능미를 강조하는 레드 립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팜프 파탈의 요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 헤어스타일

영화 속 김수진은 블랙에 가까운 짙은 브라운 컬러의 헤어스타일로 등장한다.

<그림 46>, <그림 47>은 깔끔하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로 극 중 부잣집 사모님 캐릭터와 적합하며 고귀한 느낌을 준다. 또한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로 인해 속내를 알 수 없는 음탕한 여인의 메이크업과 의상으로 시선이 집중되어, 팜프 파탈의 요소로 표현된 메이크업과 의상에 시너지 효과를 준다. 그리하여 더욱 더 농염한 팜프 파탈의 여인으로 만들어 준다.

<그림 48>은 앞서 보았던 단정하게 묶은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여성미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스타일인 긴 생머리를 풀어 헤쳐 섹시한 느낌을 더해 주는 스타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51>에서는 한쪽으로 넘겨 땅아 내린 헤어스타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순수하게 보이고자 하는 내면의 음탕한 속내가 느껴지는 헤어스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해보이고자 했지만 붉은 립 메이크업이 그녀의 거짓된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김수진의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게 빗어 넘긴 스타일에서 여성미와 농염함을 함께 표현하였고, 풀어헤친 긴 생머리에서 섹시함을 더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탕한 속내를 숨기고자 한쪽으로 넘겨 땀아 내린 거짓된 헤어스타일에서 음탕한 팜프 파탈 여인의 이미지를 더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5) 의상

도발적인 매력을 지녔으며 농염한 섹시미가 돋보이는 김수진의 외모에 맞게 영화 속 김수진의 의상은 은근한 섹시함이 묻어나오는 스타일이 많이 나타난다.

<그림 54>, <그림 55>는 두 장면 모두 여성스러운 느낌의 셔링이 잡힌 베이지 계열의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 각기 다른 의상이지만 비슷한 느낌을 전해주며 두 의상에서 여성스러움과 섹시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베이지 컬러는 사람의 피부 톤과 가장 비슷한 컬러로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다가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렬한 컬러인 블랙이나 레드보다 섹시함을 더 어필할 수 있는 컬러이다.

셔링이 잡힌 베이지 컬러의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김수진의 모습에서 의상이 마치 가면 속 악녀 본성을 감추고는, 거짓된 천사의 모습을 어필하는 도구처럼 느껴진다.



<그림 54> 거짓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림 55> 강선우를 간호하며

<그림 56>, <그림 57>은 컬러와 디자인은 다르지만 같은 소재로 섹시미가 느껴지는 시스루 스타일의 의상이다. 옷 안으로 비치는 이너웨어와 속살이 성적 매력을 자극하는 김수진을 더욱더 아찔한 섹시함의 팜므 파탈 여인으로 연출한다.



<그림 56> 진실을 밝히는 김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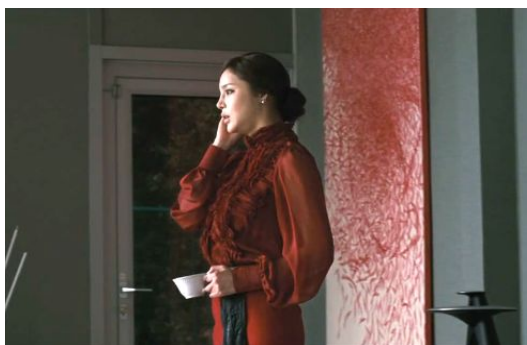


<그림 57> 경찰서에서 진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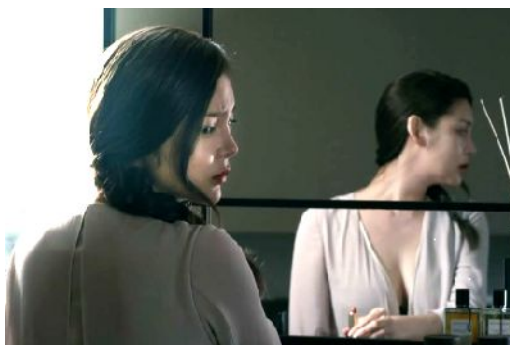
<그림 58>은 셔링과 시스루 형태가 모두 표현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다. 가슴 부분은 셔링이 가득하게 장식되어져 있고, 팔 라인은 시스루 스타일로 강렬한 레드 안에 은근히 비치는 속살이 섹시미를 더욱 더 부각시킨다.

<그림 59>는 남편의 장례식 날의 모습으로, 가슴골이 깊게 파인 라이트 베이지 컬러의 실크 소재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다. 소재와 형태, 컬러까지 모두 남편의 상을 치르는 슬픔으로 가득 찬 부인의 의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음탕한 팜프 파탈의 여인으로 느껴진다.



<그림 58> 한국을 떠나기 전



<그림 59> 남편의 장례식 전 거짓슬픔

이처럼 김수진의 의상은, 피부 톤과 비슷하여 섹시함을 더해주는 베이지 컬러와 섹시미와 관능미의 대표적인 컬러 레드와 블랙에서 팜프 파탈의 요소를 엿볼 수 있고,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셔링과,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시스루 스타일이 더해져 음탕한 팜프 파탈 이미지로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화 ‘간기남(2012)’에 등장하는 ‘김수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음탕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 스타일을 살펴보았다. 성적 욕구를 자극하여 강선우를 유혹하고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김수진의 모습에서, 성적매력으로 남성들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릴리트와 메살리나처럼 음탕한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의 전체적인 스타일에서 음탕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 요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퇴폐적인 섹시미가 느껴지는 음영을 준 스모키 메이크업과 정열적이고 자극적이며 유혹적인 레드 립 포인트 메이크업에서 음탕한 팜프 파탈 이미지가 더욱 더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수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살펴본 음탕한 팜프 파탈의 키워드는 ‘음탕’, ‘퇴폐’, ‘관능’, ‘섹시’, ‘농염’, ‘도도’, ‘도취’로 요약된다.

4) 매혹적인 이미지 - 카운트다운(2011)

(1) 작품 개요

영화 ‘카운트다운(2011)’은 허종호 감독이 만든 영화로 2011년에 개봉되었다. 배우 전도연(차하연 역)과 정재영(태건호 역)의 주연으로 장르는 스릴러, 코미디이다. 이 영화는 극한 상황에 처한 한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모의 사기전과범과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이다.

아들을 잃고 채권추심원이 되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던 태건호는 어느 날 간암 판정을 받게 된다. 그는 10일 안에 자신의 아들 심장을 이식받은 여자 차하연의 간을 이식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그는 차하연을 찾아내어 간 이식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태건호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는 달아나버린다. 사실 태건호의 통장 잔고를 보고 간 이식을 약속했지만 그녀는 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달아난 차하연은 결국 태건호에게 잡히지만 곧 위험에 빠지게 되고, 태건호는 자신이 살고자 필사적으로 그녀를 돕는다.

그렇게 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고자 했던 태건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들이 죽은 그 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그때의 충격과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해리성 기억장애가 생겨 그동안 그날의 기억을 모두 잃고 살았었다. 모든 기억이 되 살아난 그는 결국 죄책감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어 죽음의 길을 택한다.

<그림 60>은 이 영화의 포스터로 속을 알 수 없는 차하연의 묘한 표정과 도발적인 메이크업, 유혹적인 의상에서 그녀가 매혹적인 팜므 파탈의 여인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림 60> 영화 '카운트다운(2011)' 포스터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82188>, 검색일 2014.04.22)

(2) 캐릭터 특징 - 차하연 역(전도연)

전도연이 역할을 맡은 캐릭터 차하연은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적인 지식까지 다양하게 갖추었으며, 내면적인 아름다움까지 지녀 상대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인이다. 이렇게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그녀에게 남성들은 쉽게 빠져든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둘러싸인 여자이다. 마치 프리네와 헬레네처럼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절대적인 아름다움만을 믿고 살아왔으며, 그 무기로 여러 남성들을 위협에 빠뜨리고도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사기로 살아온 차하연은 팜므 파탈적인 매력으로 정재계, 법조계 등 각계의 유명 인사들을 동원해 30분 만에 170억을 모으는 마력을 지닌 여인이다. 결국 그녀는 사기죄로 복역하게 되지만, 출소 후 자신을 교도소에 보낸 조명석의 부하를 유혹하여 조명석에게 제대로 복수하는 등 언제 어디서든 남성들을 유혹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대단한 매력을 갖춘 팜므 파탈의 여인이다.

(3) 메이크업

매혹적인 팜프 파탈의 여인 차하연도 앞서 보았던 황진이와 김수진과 마찬가지로 눈을 강조하는 스모키 기법의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황진이와 김수진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통통 튀는 매력의 차하연 캐릭터처럼 메이크업마저도 발랄한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차하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는<그림 61>, <그림 62>, <그림 6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고양이 같은 느낌의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발랄함이 묻어난다.

<그림 63>, <그림 64>를 자세히 살펴보면, 깊이 있는 눈매를 연출해 주기 위해 블랙의 아이섀도로 아이홀 부분까지 넓게 펴 발라 면적인 느낌으로 표현해 주었고,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짙은 블랙의 아이라이너로 눈 앞 머리부터 꼬리까지 연장하여 과장되게 그려 주었다. 펜슬 형태의 아이라이너로 점막 부분을 채워주어 좀 더 요염한 이미지를 더해 주었으며, 날카롭게 올려 그린 눈꼬리는 고양이 같이 섹시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귀여운 이미지까지 함께 전달해준다.

피부는 글로시한 느낌으로 촉촉하게 표현하였고, 눈 밑 언더라인까지 한 올 한 올 촘촘하게 바른 마스카라는 차하연의 통통 튀는 매력을 더해주며, 매트한 핑크 계열의 입술이<그림 65> 사랑스러움을 부각시켜준다.



<그림 61> 복역 전 투자자들을 설득시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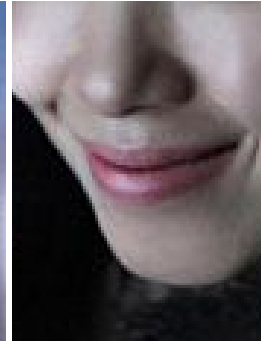
<그림 62> 복역 전 사업파트너를 회유하며



<그림 63> 복역 후 BAR에서



<그림 64>
차하연의 눈



<그림 65>
차하연의 입

<그림 66>, <그림 67>을 보면 약간 두꺼운 일자 형태의 눈썹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자 형태의 두툼한 눈썹은 유선형이나 각진 형태보다 어려보이는 동안 이미지로 연출해 준다.



<그림 66> 기밀문서를 손에 넣고



<그림 67> BAR에서

이와 같이 차하연의 메이크업은, 강하고 뚜렷하지만 깨끗한 느낌을 강조한 황진이의 스모키 메이크업과 음영을 주어 그윽하고 퇴폐적인 느낌을 주는 김수진의 스모키 메이크업과는 다른 스타일로, 눈꼬리를 올려 그려 발랄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요염한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블리한 핑크 립 메이크업과 함께 동안 이미지를 주는 일자 형태의 두툼한 눈썹으로 사랑스러움을 더해주는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헤어스타일

영화 속에서 차하연의 헤어스타일은 복역 전과 후로 스타일이 나뉜다.

<그림 61>은 복역 전으로, 브라운 컬러의 앞머리를 덮은 뱅 헤어에 긴 웨이브 스타일로 연출되어 있다. 컬러와 형태에서 발랄하고 통통 튀는 차하연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헤어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2>는 사기죄로 복역하기 전,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 사업파트너를 회유하고 있는 장면이다. 모든 것이 거짓인 차하연이 믿음을 주는 선한 표정과 더불어 청순함을 강조하는 포니테일 헤어스타일로 연출하고 있다.

<그림 63>, <그림 66>, <그림 67>은 복역 후 한 남성을 유혹할 때의 모습으로, 차하연의 도발적이고 스타일리쉬한 보브컷 헤어스타일이 눈에 들어온다. 블랙 컬러의 숏컷으로 변신한 차하연은 섹시한 느낌과 더불어 시크하고 도도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약간은 보이쉬한 느낌마저 준다.

전체적으로 차하연의 헤어스타일은 복역 전에는<그림 61>, <그림 62> 여성스러우면서 발랄한 느낌의 팜프 파탈을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이었다면, 복역 후에는<그림 63>, <그림 66>, <그림 67> 스타일리쉬하고 도발적인 느낌의 팜프 파탈의 여인으로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의상

상류층과의 인맥을 위해 고급스러운 장소에 자주 등장하는 미모의 사기전과범 차하연은 화려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은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그림 68>은 차하연의 수려한 말솜씨로 많은 투자자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어깨에 장식된 화려한 비즈가 그녀의 사치스러움을 나타내고, 힘이 잔뜩 들어간 오버 솔더 자켓이 카리스마 있는 팜프 파탈 여인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림 69>는 누드 톤에 가까운 오프 솔더의 원피스로 피부 톤과 비슷한 컬러에서 주는 섹시함과, 가슴이 보일 듯 말 듯 한 형태에서 주는 아찔함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나로 묶어 어깨위에 자연스레 얹어놓은 포니테일 헤어 스타일이, 노출되어 있는 한쪽 어깨를 강조해주어 더욱 시선이 가게 한다.



<그림 68>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때



<그림 69> 사업파트너를 회유할 때

<그림 70>은 하늘하늘한 소재로 편안해보이지만 야릇한 느낌을 주는 시스루 가운을 입고 있다. 경제력이 뛰어난 한 회사의 회장님을 유혹하기 위해 요염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에서 팜프 파탈의 매력이 무한 발산된다.

살랑거리는 시스루 가운 안에 여성이 가장 섹시해 보인다는 레오파트 문양의 속옷이 살짝 비쳐 섹시함을 한껏 더해주며, 도발적인 차하연의 매력을 극대화 시킨다.

<그림 71> 또한 레오파트 문양의 상의를 입은 모습으로 일반적인 브라운 컬러가 아닌, 옐로우 컬러의 레오파트 문양이다. 옐로우는 ‘행복’과 ‘활력’을 연상시키는 컬러¹¹⁸⁾로, 레오파트 문양이 주는 섹시함과 옐로우 컬러가 주는 발랄함을 함께 표현해주어 차하연의 캐릭터와 잘 매치되는 의상으로 보인다.

118) 엠브로즈 외, 김은희 역(2008), 전계서, p.114.



<그림 70> 요트 위에서 회장님을 유혹하며



<그림 71> 완벽한 사기로 돈을 모은 후

<그림 72>는 블랙의 퍼(Fur)로 된 의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실어주며, <그림 73>은 <그림 72>의 퍼 코트 안에 입은 의상으로, 칠후 같은 어둠의 블랙 의상과 과하게 노출된 스킨 컬러가 강한 대조를 이루어 아찔하면서도 매혹적인 팜프 파탈의 이미지를 부여해 준다.



<그림 72> 조명석의 부하에게 접근하기 전



<그림 73> 조명석의 부하를 유혹할 때





이처럼 차하연의 의상은, 속살이 비치는 야릇한 느낌의 시스루 소재나 여성이 가장 섹시해 보인다는 레오파트 문양 등 소재와 형태면에서 화려하고 섹시한 느낌을 주며, 매혹적인 팜프 파탈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요소들로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화 ‘카운트다운(2011)’ 속에 등장하는 ‘차하연’이라는 인물을 통해 매혹적인 이미지의 팜프 파탈 스타일을 살펴보았다. ‘미모’라는 무기로 남

성들을 쉽게 유혹하여 원하는 것 또한 쉽게 얻어내는 차하연의 모습에서, 죄를 저지르고도 아름다운 미모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프리네와 헬레네처럼 매혹적인 요부형의 팜므 파탈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 의상의 전체적인 스타일에서 매혹적인 이미지의 팜므 파탈 요소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눈꼬리를 날카롭게 올려 그려 요염한 느낌을 주는 스모키 메이크업과 야릇한 시스루 소재와 섹시한 레오파트 문양의 의상에서 매혹적인 팜므 파탈의 요소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매혹적인 팜므 파탈의 키워드는 ‘매혹’, ‘유혹’, ‘요염’, ‘미모’, ‘섹시’, ‘발랄’, ‘화려’로 요약된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여성상의 팜므 파탈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표 2>로 정리·요약하였다.

<표 2> 한국 영화에 표현된 팜프 파탈 캐릭터 스타일 분석

여성상	영 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 상	이미지	
잔인한 이미지	친절한 금자씨 (2005)	<p>기법 : 개성 있지만 자극적인 느낌의 그로테스크 M/UP</p> <p>피부 : 매트하고 깨끗하게 표현</p> <p>눈 : 레드 컬러 아이섀도와 블랙의 깔끔한 아이라이너, 살짝 터치해 준 마스카라</p> <p>눈썹 : 블랙의 일자 형태</p> <p>입술 : 핑크베이지로 매트하게 표현</p>	<p>메두사를 연상시키는 진한 블랙 컬러의 굵게 웨이브진 스타일과 복수의 의지를 나타내는 하나로 묶은 스타일</p>	<p>복고적인 원피스와 여성스러운 셔링 원피스, 복수와 고독 등 내면을 표출하는 톤 다운된 블루 코트와 블랙의 가죽 의상</p>	<p>잔인 분노 파괴 죽음 복수 괴기 농염 우울</p>	
신비한 이미지	황진이 (2007)	<p>기법 : 현대적인 느낌의 깨끗한 스모키 M/UP</p> <p>피부 : 깨끗하고 촉촉하게 표현</p> <p>눈 : 골드 블론즈 컬러의 아이섀도와 눈꼬리 라인을 올려 그리고 점막까지 채워준 블랙의 아이라이너</p> <p>눈썹 : 블랙에 가까운 컬러의 유선형의 형태</p> <p>입술 : 핑크베이지로 글로시하게 표현</p> <p>치크 : 피치계열의 컬러로 터치</p>	<p>신비스러운 실버와 블랙 컬러 위주의 화려한 머리장식과 천을 이용한 현대적인 창작의 요소가 가미된 가चे</p>	<p>고뇌와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블랙 컬러에 화이트, 블루, 그린, 바이올렛 컬러를 매치시킨 현대적인 느낌의 한복</p>	<p>신비 오묘 환상 매력 우아 고혹 당당</p>	
음탕한 이미지	간기남 (2012)	<p>기법 : 퇴폐미를 부각시키는 음영을 준 스모키 M/UP 관능미를 강조하는 레드 립 포인트 M/UP</p> <p>피부 : 깨끗하고 촉촉하게 표현</p> <p>눈 : 네이비, 블랙의 아이섀도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깊고 그윽한 눈매, 풍성한 속눈썹, 블랙의 아이라이너로만 깨끗하게 표현</p> <p>눈썹 : 다크 브라운 컬러로 일자 형태</p> <p>입술 : 누드베이지의 매트한 표현과 레드 립 포인트</p>	<p>깔끔하게 빗어 넘긴 고귀해 보이는 스타일과 섹시미를 연출해주는 긴 생머리, 음탕한 속내를 숨기고자 한쪽으로 땅아 내린 청순한 스타일</p>	<p>베이지, 블랙, 레드의 한정된 컬러로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는 셔링 원피스와,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시스루 스타일의 원피스</p>	<p>음탕 퇴폐 관능 섹시 농염 자극 도발</p>	
매혹	카운트	<p>기법 : 발랄하면서 요염한 느낌의 스모키 M/UP</p> <p>피부 : 글로시한 느낌으로 촉촉하게 표현</p> <p>눈 : 넓게 퍼 바른 블랙의 아이섀도</p>	<p>앞머리를 수북이 덮은 뱅 스타일과 함께 기 웨이브</p>	<p>비즈 장식의 오버 솔더 자켓, 오프 솔더 워피스</p>	<p>매혹 유혹 요염</p>	

IV. 결 론

현재 대중문화 속에서 팜므 파탈 이미지의 여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가부장적 시대에 보수적인 남성 시각에서 보이던 부정적 이미지의 팜므 파탈이 아닌, 욕망에 솔직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개척해나가는 당당하고 긍정적인 여성 이미지로 비춰진다.

팜므 파탈 이미지는 19세기 말 변화된 여성의 지위 향상에 위기의식을 느낀 남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남성들의 심리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으며, 1940년대 등장한 ‘필름느와르’라는 범죄 영화 속에서 ‘팜므 파탈’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팜므 파탈은 오늘날까지 영화 속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캐릭터의 이미지로, 많은 여성들이 팜므 파탈 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남성들 또한 매력적인 팜므 파탈 캐릭터에 호기심을 가져, 파급 효과가 큰 영화 속에 표현된 팜므 파탈 캐릭터의 스타일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팜므 파탈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여성상은 한정적이어서 표현 영역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제작될 한국 영화 속 팜므 파탈 캐릭터의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법을 위해, 현재 개봉된 한국 영화 속 팜므 파탈 캐릭터의 스타일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팜므 파탈을 분류할 수 있는 ‘잔인’, ‘신비’, ‘음탕’, ‘매혹’이라는 4가지 이미지의 여성상을 연구의 범주로 하여, 19세기 서양 회화 속에 표현된 팜므 파탈 이미지를 가진 성서와 신화 속 인물 및 실존 인물에 대해 국내·외 문헌 및 기사와 선행 논문을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어, 2000년 이후에 개봉된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므 파탈 캐릭터를 찾아 시각적 측면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및 의상을 분석하고, 분석한 특징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한국 영화 속에 나타날 팜므 파탈 이미지의 새로운 캐릭

터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잔인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19세기 서양 회화 속에서는 성서 속 인물인 ‘살로메’와 신화 속 인물 ‘메데이아’ 그리고 2000년 이후의 한국 영화 속에서는 ‘친절한 금자씨(2005)’의 ‘이금자’라는 캐릭터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할 수 없어 파멸시킨 살로메와 메데이아처럼, 이금자 또한 사랑하는 딸을 잃게 한 백선생을 잔혹하게 파멸시킨 여인으로 세 여인에게서 잔인한 팜프 파탈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금자 캐릭터의 팜프 파탈 스타일 특징은, 레드 컬러의 아이 메이크업으로 섹시하고 자극적이며 다소 괴기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로테스크한 스타일로 연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메두사를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과 이금자의 우울한 내면 심리를 나타내주는 톤 다운된 블루 코트, 복수의 내면을 표출하는 울 블랙의 가죽 의상에서 잔인한 팜프 파탈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금자 캐릭터의 잔인한 팜프 파탈은 ‘잔인’, ‘분노’, ‘파괴’, ‘죽음’, ‘복수’, ‘괴기’, ‘농염’, ‘우울’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었다.

‘신비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회화 속에서는 신화 속 인물인 ‘세이렌’과 ‘판도라’, 영화 속에서는 ‘황진이(2007)’의 ‘황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남성을 유혹하여 죽음으로 이끈 신비스런 여인 세이렌과 남성들을 평생 재앙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지만 신비하고 묘한 매력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판도라처럼, 황진이 역시 남성들 스스로 그녀에게 빠져들어 파멸되는 신비한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렇게 세 여인에게서 신비한 팜프 파탈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세이렌과 판도라가 연약하고 청초한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된 반면, 황진은 당당하고 고풍적인 느낌의 팜프 파탈로 표현되었다는 차이점도 있었다.

황진이 캐릭터의 팜프 파탈 스타일 특징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 모두에서 기생의 대표적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레드 계열은 사용하지 않고,

블랙 컬러 위주로 연출되었다는 점이다. 21세기의 현대 여성같이 깨끗한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의상과 같은 컬러로 매치시킨 천과 실버 컬러의 뒤꽂이 등을 이용하여 창작의 요소를 가미한 화려한 가제로 연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의상은 블랙의 메인 컬러에 화이트, 블루, 그린, 바이올렛 컬러를 매치시킨 현대적인 감각의 한복으로, 고풍적인 신비스러움과 도도한 느낌을 주는 팜프 파탈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황진이 캐릭터의 신비한 팜프 파탈은 ‘신비’, ‘오묘’, ‘환상’, ‘마력’, ‘우아’, ‘고혹’, ‘당당’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음탕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회화 속에서는 성서 속 인물인 ‘릴리트’와 로마시대 실존 인물인 ‘메살리나’, 영화 속에서는 ‘간기남(2012)’의 ‘김수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성욕으로 가득 찬 쾌락의 여인들 릴리트와 메살리나처럼, 김수진 또한 성적 욕구를 자극하여 남성을 유혹한 후 파멸시키는 여인으로, 세 여인에게서 음탕한 팜프 파탈의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김수진 캐릭터의 팜프 파탈 스타일 특징은, 퇴폐적인 섹시미를 부각시킨 음영을 준 스모키 메이크업과 관능미를 강조하는 레드 립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표현된 것이며, 베이지, 블랙, 레드의 한정된 컬러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셔링과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시스루 스타일의 원피스로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농염하고 음탕한 이미지의 팜프 파탈을 강조하기 위해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 깔끔하고 고귀해 보이는 스타일과 섹시미를 연출해주는 긴 생머리, 그와 정 반대로 음탕한 속내를 숨기고자 한쪽으로 땀아 내린 청순한 헤어스타일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김수진 캐릭터의 음탕한 팜프 파탈은 ‘음탕’, ‘퇴폐’, ‘관능’, ‘섹시’, ‘농염’, ‘도도’, ‘도취’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었다.

‘매혹적인 이미지’의 팜프 파탈은, 회화 속에서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실존 인물이었던 ‘프리네’와 신화 속 인물 ‘헬레네’, 영화 속에서는 ‘카운트다운

(2011)'의 '차하연'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죄를 저지르고도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프리네와 헬레네처럼, 차하연 또한 타고난 미모 하나로 여러 남성들을 다스리는 매혹적인 여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세 여인에게서 매혹적인 팜프 파탈의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차하연 캐릭터의 팜프 파탈 스타일 특징은, 눈꼬리를 올려 그려 발랄함과 요염함을 동시에 주는 스모키 메이크업과 앞머리를 수북이 덮은 뱅 스타일의 긴 웨이브, 청순함을 강조한 포니테일 헤어스타일과 스타일리쉬하고 도발적인 보브컷 헤어스타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즈 장식의 오버숄더 자켓과 퍼 소재의 코트, 시스루와 레오파트 등 다양하게 나타난 화려한 스타일의 의상으로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차하연 캐릭터의 매혹적인 팜프 파탈의 키워드는 '매혹', '유혹', '요염', '미모', '섹시', '발랄', '화려'로 요약할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팜프 파탈의 스타일도 점차 변화되었으나, 팜프 파탈의 기본 개념과, 전체적인 특징은 비슷한 양상들로 나타났다. 19세기 서양 회화 속에 표현된 팜프 파탈 이미지와 21세기 한국 영화 속에 표현된 팜프 파탈 이미지는 '동·서양'이라는 '문화' 차이와 '19세기'와 '21세기'라는 '시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 회화 속에 표현된 인물은 전부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대다수로, 작가의 의도대로 그려진 작품 속 그림을 보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영화 속 실존 인물로 표현된 팜프 파탈 캐릭터와는 인물의 특징 외에 스타일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19세기 예술가들로 인해 탄생한 팜프 파탈의 요부형 이미지들이 21세기 현재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고, 2000년대의 트렌드가 더해져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본 연구를 통하여 2000년 이후의 한국 영화에 표현된 팜프 파탈 캐릭터의 스타일에 대해 살펴보았다. 팜프 파탈을 형상화하기 위한 시각적 측

면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의상을 고찰 및 분석하여 각 여성상이 표현하고 있는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영화를 2000년 이후라는 기준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현 시대에 유행하는 팜프 파탈 캐릭터 스타일에 대해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본 연구가 새로운 여성상의 팜프 파탈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특징은 유행을 타기 마련이라 시대가 변하면서 함께 변할 수 있다. 때문에 당대의 스타일만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후대에 또 다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메이크업의 분석에 있어서 ‘잔인한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상인 ‘신비, 음탕, 매혹적인 이미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기법으로 표현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기법인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에 새롭게 유행이 시작됐던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인해 2000년대의 팜프 파탈 캐릭터 스타일의 특징이 확실히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지만, 비슷한 특징으로 인해 분석적인 표현은 다소 미흡했음을 알린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나타난 팜프 파탈 캐릭터에 대해서 확실히 분류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안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보며, 메이크업, 헤어, 의상 뿐 아니라, 액세서리 등 보다 세부적인 분류로 구체적인 분석과 해석이 연구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곽호완, 박창호, 이태연, 김문수, 진영선 (2008).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 거다 러너, 김인성 역 (1999).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서울: 평민사
- 구본형 (2013). *구본형의 그리스인 이야기*, 서울: (주)상지피엔아이
- 김길웅, 신지영, 이민용, 이영임, 이용은 (2011). *신화와 사랑*,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복래 (2013). *권력과 철학을 뒤흔든 매춘부 헤타이라*, 서울: 새문사
- 린다 하트, 강수영 역 (1999). *악녀*, 경기: 인간사랑
- 마커스 로드윅, 유영석 역 (2003). *신화와 미술 성서와 미술*, 경기: 아트나우
- 바르바라 지히터만, 안인희 역 (2002). *여성*, 서울: 해냄
- 번 벌로, 보니 벌로 저, 서석연, 박종만 역 (1992). *매춘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까치
-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 이세욱, 임호경 역 (2011).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경기: (주)열린책들
- 빅 드 동데르, 김병욱 저 (2002), *세이렌의 노래*, 서울: 시공사
- 알랜드 보통, 정미나 역 (2013). *인생학교-섹스*, 경기: (주) 쌤앤파커스
- 엘릭샌더 스티지스, 홀리스 클레이슨 저 권영진 역 (2007), *주제로 보는 명화의 세계*, 서울: 마로니에북스
- 유한나, 김진숙, 박경진 (2010). *색채와 디자인*, 서울: 백산출판사
- 이경덕 (2013). *하룻밤에 읽는 그리스 신화*, 서울: (주)알에이치코리아
- 이동현 (2009). *신들의 사랑법*, 서울: 오피스
- 이명옥 (2008). *팜프파탈-치명적 여인들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서울: (주)시공사·시공아트

- 이문철 (2003). 어떤색이 좋을까? Color Combination, 서울: (주)영진닷컴
- 이연식 (2011). 아트파탈,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이주현 (2011). *역사의 미술관*, 경기: (주)문학동네
- 장영란 (2005). *그리스 신화*, 경기: 살림출판사
-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역 (1989). *에로티즘*, 서울: 민음사
- 차기태 (2014). *미술작품을 결들인 에피소드 서양문화사*, 서울: 필맥
- 토마스 불핀치, 김선영 역 (2011). *그리스 로마신화*, 서울: 꿈과 희망
- 하랄드 브램, 이재만 역 (2010). *색의 힘*, 서울: 도서출판 일진사
- 한대균 (2011).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을 읽다*.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함연진 (2010). *이미지와 상상력-그리스 로마신화를 찾아서*, 서울: 글누림 출판사
- 게르하르트 핑크, 이수영 역 (2012). *후 WHO: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들*, 서울: 도서출판 애경
- Laura Adler, Elisa Lecosse (2013). *Dangerous Women-The Perils of Muses and Femmes Fatales*, Random House, Inc.
- Virginia M. Allen (1983). *The Femme Fatale*, New York: Whiston Publishing Company, Inc.

<논문>

- 김복희, 남윤숙 (2006).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 나타난 팜프 파탈 의상의 미적 특성, *한국복식학회 56권 9호*, pp.14-23.
- 김성일, 김영은 (2006). “팜프파탈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미국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제1권 2호*, pp.79-93.
- 김은하 (2007). “국내영화에 표현된 팜프파탈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8권 3호*, pp.1-28.
- 김정시 (2006).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

- 릭대학교 대학원.
- 김차애 (2006). “한국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남선미 (2004). “회화속 등장인물의 팜프 파탈 이미지 분석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선정 (2009). “팜프 파탈의 토탈 패션 이미지 분석-영화 『발몽』과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박승현 (2004). “회화에 나타난 팜프 파탈 연구-19세기말, 20세기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박은정 (2008). “팜프 파탈 이미지 모델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특성”,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정란 (2003). “팜프 파탈-성과 권력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박정원 (2007). “팜프 파탈 이미지 메이크업-영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유한나 (2009). “한국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와 캐릭터 스타일링에 관한 연구: 의상, 헤어스타일링-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윤보원 (2005). “영화에 나타난 팜프 파탈 이미지와 스타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이지원 (2004). “20세기 초 무용에 나타난 팜프 파탈(Femme Fatale)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제 14집, pp.167-210.
- 이하나, 백선영 (2008). “기녀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조선시대부터 개화기까지”, 한국패션뷰티학회지 제6권 제4호, pp.217-220.
- 이화진 (1997). “팜프 파탈 *Femme fatale*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현주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팜프 파탈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권희 (1993). “귀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의 작품에 나타난 *Femme Fatale*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한수정 (2006). “예술의 팜프파탈(*Femme Fatale*) 이미지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한지연 (2014). “롤랑 프티(*Roland Petit*)의 「젊은이와 죽음(*Le Jeune Homme et la Mort*)」에 내재된 팜프 파탈(*Femme Fatale*)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홍수남, 이상은 (2009). “팜프 파탈 이미지와 스모키메이크업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대중스타를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지*, pp.25-41.

<웹사이트>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3562&cid=693&categoryId=693> (검색일 2014.05.10.)
-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42f1773c29164714b1c7c15bba5e4a6f> (검색일 2014.05.10.)
-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8766> (검색일 2014.04.20.)
-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0311> (검색일 2014.04.20.)
-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88489> (검색일 2014.04.21.)
-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82188> (검색일 2014.04.22.)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7/08/28/20070828001438.html>

심형보(2007.09.01.). 명화속 여성: 존 윌리엄스 워터하우스-판도라 (검색일
2014.04.05.)

<DVD 영상>

간기남 (2012)

친절한 금자씨 (2005)

카운트다운 (2011)

황진이 (2007)

ABSTRACT

Analysis on femme fatale character styles expressed in Korean movies

– Focusing on the movies after 2000 –

Oh, Chae Eun

Make-up·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Femme Fatale' means a woman who destroys men having fatal attractions as the image of women which was sensationally popular in the Decadent age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is image has been shown being spread in various media until today since it had taken concrete shape in 'Film Noir', the crime movies of 1940s.

The 19th century's Femme Fatale was the image of wicked women which drives into catastrophe, but it has been changed to that of proud women who love themselves and are honest about their desire in the 21st century that women solidified their social position more.

This image of Femme Fatale is the character that has often appeared in

Korean movies which have a great ripple effect. However, the areas that the woman type of the femme fatale image defined now can visually be expressed are somewhat insufficient because they are limited.

In this light, it is thought that studies on analysis of femme fatale character styles in the Korean movies which are released now are needed for the various methods to express femme fatale characters that will be produced in the future visual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woman type of the femme fatale image expressed in western paintings of the 19th century by classifying it into 4 images of 'cruelty', 'mystery', 'salacity', and 'fascination' and considered and analyzed the femme fatale character styles of the Korean movies since 2000 that the characters who are suitable for this woman type by finding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at sugges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makeup, hair styles, and clothes, the visual aspect to embody femme fatale characters will try to be helpful for development of new characters of the femme fatale image which will be shown in Korean movie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emme fatale of 'the cruel image' has irresistible beauty through characters shown in the western paintings in the 19th century and the Korean movie after 2000 and was expressed as the brutal temptress type that cruelly kills men. Femme fatale of the cruel image was summarized as the key words of 'cruelty', 'brutality', 'destruction', 'fear', 'death', 'revenge', and 'wickedness'.

The mysterious image' was expressed as the temptress type that attracts men strongly with supernatural power as the image that they ruin

themselves by being fascinated by it. The key words were summarized as 'mystery', 'pureness', 'fantasy', 'abstraction', 'seduction', 'elegance', and 'supernatural power'.

'The lascivious image' was expressed as the image of the lascivious type that tempts and destroys men with sex appeals and the key words were summarized as 'salacity', 'decadence', 'pleasure', 'bodies', 'sexy', 'stimuli', and 'glamorousness'.

'The fascinating image' was expressed as the fascinating temptress type that is forgiven for all sins by good looks only, the strongest weapon and controls men and the key words were summarized as 'fascination', 'temptation', 'intoxication', 'voluptuous beauty', 'good looks', 'overwhelming', 'splendor', and 'fatal'.

As the times changed, the image of femme fatale was gradually positively changed. However, it can be found that the basic concept and general frame of femme fatale showed the similar characteristics in the 19th and 21st centuries. And the temptress type images of femme fatale which were born by the 19th century's artists could be found to have a great effect on the present of the 21st centur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development of the woman type of new femme fatale characters in the future and studies which suggest various women type characters will continue to be developed to make femme fatale characters that will be shown in Korean movies be more variously expressed.